

총학 본관 점거농성 돌입

학교·학생회 입장차이 커 장기화 될 전망

지난달 31일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 이하 총학)가 등록금동결,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실시를 주장하며 이사장실, 총장실, 법인사무처에 대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총학은 지난달 31일 해오름식과 학생총회 진행 후 점거에 돌입했으며 교직원들과의 큰 충돌 없이 1시간 30분여 만에 이사장실 등을 점거했다.

총학은 점거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재단전입금이 전무하고 2003년 결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학생총회 전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점거 하루 전 교무

위원 중 한 사람은 몇몇 학생대표자들에게 "준비한 것 있으면 다해 보라"는 말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학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와 등록금 동결을 포함한 10대 학자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등록금 재조정"은 학교측의 입장과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는 학생회측의 의견 차이가 커 점거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총학은 오는 14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감사에 대한 지지연서 받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며 오는 14일 교육부에 감사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일과 14일 팔정도에서 등록금 동결을 위한 총결

기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총장실은 총학과 경영대, 야간강좌가 농성중이며 이사장실은 동아리연합회와 사과대, 사범대가 법인사무처는 불교대, 문과대, 예술대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보도)

한편 앞서 진행된 학생총회는 재적인원 2600여명에 900여명의 학생만이 참가해 안전으로 상정된 △회칙개정 △대학감사실시 △등록금 동결은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해오름식은 △중앙문예단공연 △과학생회장 공연 △서총련의장 발언 △새내기 농구대회 수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학생회가 지난달 31일 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진행중이다.

구 도서관 리모델링 착공

내년부터 강의실·열람실 등으로 이용

구 중앙도서관(이하 구 중도) 리모델링이 착공됐다. 본교는 지난달 23일 울트라 건설과 계약을 맺고 바로 리모델링에 돌입했으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60억여원이다.

공사는 올해 겨울방학까지 마무리되며 다음해부터 △1층=법대

△2층=불교대 △3, 4층=교수연구실 △서고부분= 열람실로 이용된다. 울트라건설은 올림픽대교 등을 시공한 업체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1년동안이나 지연된 만큼 빠른 완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복지개선 요구안 제출

교수회, 임금 8%인상 등

교수회(회장=염준근·통계학)가 지난 2일 기획인사처(처장=이영환·경제학)에 교원복지개선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곧 논의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수회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내용은 △기본급 인상률 8%와 식비보조 월 1만원 △직급별 연구비상향 조정 △8월 연구조성비 지급

체계 개선 △군경력 호봉 반영 △초임교수 임용시 조교수 직급 부여이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교수회장은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요구안이기 때문에 학교측과의 지속적인 논의의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의 힘... 전국교육대학원협의회가 지난 2일 중요공원에서 42 대학생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서울·경인 지역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등록금 문제 해결, 청년실업 해결을 주장했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본교생 70% 총선 "투표할 것"

청년실업문제 20대 관련 최우선 과제로 꼽아

본교 학생 중 약 70%의 유권자가 오는 4·15일 총선 때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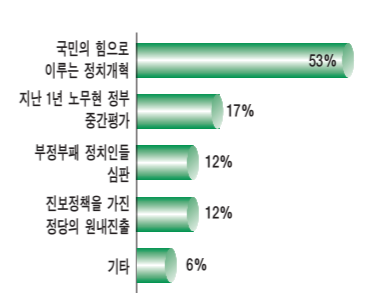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17대 총선을 2주일 앞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투표를 가진 본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총선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9.33%(208명)의 학생들이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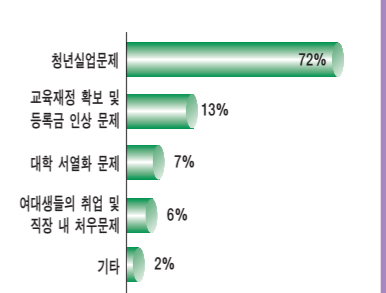
또한 이번 총선의 의의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53%가 '낮은 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 자리'(17.33%), '부정부패 정치를 심판 자리', '진보적 정책을 가진 정당의 원내 진출 자리'라는 의견이 12%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의 역할에 대한 물음에는 43.33%의 학생이 '낮은 정치

▶이번 총선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선을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할 20대 관련 사회과제는?



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자의 역할'(26.67%), '대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20%), '개혁적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8%)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이번 총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20대 관련 사회적 과제로는 72%의 학생들이 '청년실업문제'를 첫번째로 꼽았고 '교육재정 확보 및 등록금 인상문제'가 13%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6·7면(주제기획)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농협과 산학협력 체결

공동기획단 발족 후 구체적 논의

본교와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가 지난달 30일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장·단기 협력사업 추진구상을 발표했다.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조인식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산학협력 협정을 통해 의료·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를 협력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기상 총장도 "불교병원 개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생명자원분야를 특성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협정을 통해 본교는 농협과 양·한방협진을 기반으로 한 농촌의료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사업도 함께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일산불교병원을 축으로 연

구개발센터와 건강관리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는 종합의료복지타운을 건설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농협대가 위치한 고양시에 국제적인 BT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농업·생명공학·생태공학을 연계한 협동캠퍼스를 조성해 대학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는 고양시 부근에 동북아 연구개발클러스터를 추진하려는 정부의지와도 상통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농협과의 산학협력추진 구상은 이달 중 발족하는 본교와 농협의 공동기획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토목과 동문회 장학금 기부

장학금 8천 8백만원 조성

토목환경공학과 동문회(회장=손영문 69졸)가 지난달 26일 토목환경공학과에 4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토목과 동문회는 이공계 기피현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에도 4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토목환경학과 장학기금은 동문회 기부금 8천만원과 학교에서 지원한 8백만원이 추가돼 총 8천8백만원에 이르렀다.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전근주 (문과대 국문1)
- ▲ 신남정 (사과대1)
- ▲ 김해진 (사과대1)
- ▲ 김중목 (사과대1)
- ▲ 박준영 (경영대1)

- 이산 4월 5일자

보리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사현정

최근 도올 김용옥 씨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정칼럼 게재를 거부한 문화일보에 거세게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 3월 29일자 문화일보에 실릴 예정이었던 '도올고성' 제하의 글이 신문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기실, 언론의 공정성 내지 공평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양비론 또는 양사론)의 중간자적 의미라 아니라, 정(正)을 위해 사(邪)를 과

감히 내쳐야 한다는 뜻일 게다. 힘의 논리에 눈치를 보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비열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탄핵정국,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정략적인 국회 탄핵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국가의 중대사태에 접한 국민들로 하여금 '잠자코 앉아 있으라'는 일부 지식층과 수구언론들의 작태를 보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통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년센스이자 위헌"이라는 도올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에게 던져주는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조차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일 터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라는 헌법 제1조항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불교의 기본적인 실천논리로써 파사현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사됨이 치성을 때를 따르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는 일은 파사현정의 실천이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주권을 행사하는 일에 다름아닐 것이다. 4.15 총선이 코앞에 다가서 있다.

하춘생
주한불교 편집부장

지면안내

4면 해설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록금 인상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속이 보이는 투명한 정치

당신의 손으로 해냅시다

오는 15일은 17대 국회 총선입니다.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정치인의 선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6, 7면 주제기획
총선과 대학

본교 학생들을 통해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8면 사회
영화 '송환' 상영회

지난 2일 화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비전향장기수 다큐멘터리 영화 '송환' 상영회를 지면화했다.

불교병원 개원 본격화

내년 3월 개원 ... 2008년까지 손익분기점 달성

일산불교병원에 대한 개원과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발표한 일산불교병원 개원추진단(단장=배성환·의학이하 개원추진단)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일산 불교병원은 내년 3월 8백44병상으로 개원하며 오는 2008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제3의학을 병행하는 복합문화병원으로의 변화가 시도될 예정이다.

이에 개원추진단은 개원부터 2008년까지 일산불교병원을 수도권 중상위권 병원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 이후 진행될 서울대병원·서울 삼성병원에 버금가는 병원으로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앞서 개원추진단은 개원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공식인 의무원장을 선임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며 8, 9월 경에는 병원진료 계획 확정 및 각 부문별 의료 시스템을 가동해 내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산 불교 병원이 양·한방 협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성격상 의무원장은 양방병원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배성환 개원추진단장은 "의무원장의 경우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돼야 한·양방협진 3차진료기관으로 가는 기초작업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현재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은 약 4백여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외래병동, 수술실, 입원실 등의 기초적 시설은 완료된 상태이며 인력배치와 기본업무에 필요한 1백여원은 본교와 농협간의 산협력력 조인식을 통해 해결돼 당장의 병원 개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산불교병원은 내년 3월 개원 후 손익분기점으로 예상되는 2008년을 시점으로 동서 의학을 병합하는 제3의학 창출을 위한 기본 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부 dmz@dongguk.edu

탄핵반대 학내 움직임 활발

교수 64명 성명서 발표·총학 3보 1배 진행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학내에는 이와 관련한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 및 학생들의 삼보 일배가 진행되는 등 탄핵반대에 대한 학내 여론이 뜨겁다.

지난달 25일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 △석립회 △탄핵반대 교수모임 △탄핵반대 직원 모임이 참여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화'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다양한 학내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정구(사회학)교수와 김태준(국문학)교수, 장시기(영문학)교수는 '부패수구 적결하고 정치개혁의 길을 넓히자'라는 제목의 성명서

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본교 서울캠퍼스 31명의 교수와 경주캠퍼스 33명의 교수의 서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시기(영문학)교수는 "민주화된 정치 실현을 위해 현재 시국을 걱정하는 교수들이 모여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대표 80여명은 '탄핵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광화문까지의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 총학생회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학생들이 고향에서 나오는 겸손을 바탕으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날 삼보일배는 묵언으로 정치권의 잘못된 점을 느끼게 하는 안행의식 속에 실시됐으나 후분을 벗어난 직후 전경들의 저지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학생들은 이에 대한 항

의의 의미로 참여한 학생 전원이 그 자리에서 108배를 진행했지만 이 또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학생들은 광화문까지의 행진을 중지하고 학교로 다시 들어와 국회를 상징하는 16대 국회 화형식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행사에 참가한 오소영(이과대1) 양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핵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다양한 학내 재·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탄핵반대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는 기자 bob83@dongguk.edu



신입생 가전공 신청 진행 오는 7일부터 이틀동안

2004학년도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자 가전공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각 단과대 교과과에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 정원의 입학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는 신입생이다.

그러나 가전공 신청자 중 취득 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될 경우와 누계평균평점이 3.0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전공의 우선배정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배정결과는 오는 23일 학교 홈페이지와 각 단과대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연극 '벚꽃동산' 공연 11일까지 예술극장서 열려

연극영화과 동문 극단 초청공연 '벚꽃동산'이 오는 11일까지 오후 8시 본교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전훈(연극영화 92졸) 동문이 연출한 이번 공연 '벚꽃동산'은 안뜰체육 4대 막장 중 첫 번째로 체출의 시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극적 갈등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공연은 △예수정 △이은정 △김호정 △김대진 △조민기 등 총 11명이 출연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와 '티켓파크'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변창'을 심어요 ... 지난달 29일 식물자원학과가 개설 80주년 기념행사로 '식수'를 진행했다. 식물자원학과 교수·재학생·동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술송' 나무를 해화관 앞에 심었다. 황주상 기자 hjso228@dongguk.edu

단과대별 해오름식 열려

불교대·예술대·야간강좌 진행

불교대·예술대·야간강좌의 단과대별 해오름식이 진행된다.

먼저 오는 9일 오후 5시 통일광장에서 열리는 불교대 해오름식은 △불교단편영화상영 △불교계 인사 메시지 상영 △문예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예술대 별오름제가 12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고사 △문예단 공연 △학과장 인사 △학

자 관련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위요구안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야간강좌 해오름식은 14일 오후 7시 통일광장에서 진행되며 △야간 강좌 폐지 반대 △입방식 △문예단 공연 △새내기 간담회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정산대와 사범대 해오름식은 지난주에 진행됐다.

M동 5층 도서관 화재 발생

행선재, 진선재 사이 복도 발화지점 추측

지난달 23일 동국관 M동 5층 도서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새벽 5시 30분 화재경보기가 발동해 담당 경비원이 확인한 후 신고했으며 현재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행정학과 열람실인 행선재와 경찰행정학과 열람실인 진선재 사이의 복도가 발화지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학생들 개인의 손실을 제외한 시설 및 기기 관련 손실액은 약 1억원이며 학생들의 전공서적 등의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중인 행정학과 열람실인 '행선재'와 경찰행정학과 열람실인 '진선재'는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당분간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열람실과 BSC는 오는 6일부터 이용가능하다.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시행

바이러스예방 정책도 실시 예정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이 지난 1일부터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스팸 WALL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로 인해 본교 이메일로 수신되는 모든 외부메일은 우선 스팸WALL을 거쳐 개인별 스팸 메일함으로 보내진다.

또한 정보관리실은 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 내로 바이러스 퇴치 및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본교 많은 바이러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그 고안했으며 학내 모든 컴퓨터의 경우 정보관리실에서 배포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9일까지 등록금 납부 마감

미 등록시 제적처리

재학생 등록금 납부 마감시한이 오는 9일로 결정됐다. 현재 재학생 등록률은 95.9%이며 분할납부자를 제외한 등록금 미납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총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높은 수치이며 제적통보 후의 등록 학생인원도 지난해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회계팀의 한 관계자는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꼭 등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전무대

니 맘대로 주장(?)

○...본교 '나의 주장' 게시판에는 근거 없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학생회의 본관 점거와 관련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학생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인신공격성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나의 주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논리를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다음대로 주장' 게시판을 하나 더 설치하라(!)"

시기성 제로

○...복학생들은 전과 신청을 하기 위해 한 학기 휴학도 불가피하다는데.

이유인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전과 신청이 2학기에 가능해 1학기 때 4학기를 이수한 학생의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 한 학기 휴학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전과 의 대가는 6개월의 휴가(!)"

반(反) 우정 장학금

○...지나해 학자합의안인 우정 장학금(가칭)은 풀리지 않은 숙제라는데.

알아보니 학교측과 총학생회측이 장학금 명칭과 장학 기준 등에 관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로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장학금 지급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자 합의안 우정장학금 고개넘어 또 고개(!)"

거북이 행정

○...신속하지 못한 행정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사물함 교체에 늦어지면서 현재 이용 중인 학생들이 사물함을 비우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교체를 다음 학기로 미룬 단과대도 있다고.

사물함이 학생들의 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사물함 교체, 교체 시간도 교체(!)"

2004학년도 입학성적 우수자

가전공 신청

- 1. 신청 대상**
2004학년도 신입학생 중 전형유형별(수시 1, 2차 및 정시 가, 나군) 모집단위 정원의 입학성적 상위 우수자 (대상자 명단 : 단과대학 교과과 비치)
- 2. 일 정**
가. 2인서교부 및 접수처 : 각 단과대학 교과과
나. 접수기간 : 2004. 4. 7(수) ~ 4. 9(금)
다. 배정결과 공고 : 2004. 4. 23(금), 홈페이지 및 각 단과대학 게시판
- 3. 배정 기준**
가. 원칙적으로 신청자 희망에 따라 모집단위내 개설과목중에서 배정.
나. 신청일 작성시 2차점까지 지원.
다. 특정전공으로 희망자가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별도 원칙 적용.
- 4. 제한 사항**
가. 대상자가 가전공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1학년 과정(계절학기 포함)이수 후 다음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전공에 우선배정권을 부여하지 않음.
(1) 취득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에 미달할 경우
(2) 누계평균평점이 3.0에 미달할 경우
(3)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차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1, 2차점에 모두 탈락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추후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배정기회만 부여.
- 5. 신청 절차**
가. 대상학생은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하여 본인의 적성과 진로계획을 고려하여 소속된 모집단위내 전공의 우선순위를 2차점까지 정하여 배정희망 전공을 결정.
나. 작성된 신청원은 지도교수 확인란에 싸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교과과에 제출.
다. 가전공 신청원의 신청번호는 접수 후 정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
- 6. 기타**
가. 신청기간에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우선 배정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전공배정 기회만 부여.
나. 가전공에 배정된 경우에도 전공탐색을 통하여 전공을 변경하고자하는 배정자는 일반 재학생의 전공신청 기간에 타전공으로 변경 신청 가능.
다. 1학년 수료요건 및 성적요건 충족여부는 1학년 겨울 계절학기 취득성적까지 합산하여 확정.
라. 기타문의사항 : 교양교육운영실(2260-3886) 내 소속대학 교과과

교무처

2004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방일 연수자 선발계획

- 1. 사업개요**
가. 행사명 : 2004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방일 연수
나. 주관 : 한국 국제교육진흥원·일본 (재)일한문화교류기금
다. 교류대상 : 대학생
라. 연수선발 인원 : 20명 예정
마. 연수기간 : 2004. 5. 11일 사이 실시(9박10일)
바. 주요 연수프로그램 : 대학방문(특강), 일반학생과의 간담회, 민박, 문화유적지 견학 등
사. 경비부담 :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는 양국 주관기관이 부담 (기타 경비는 본인 부담)
아. 추천마감 : 2004. 4. 9(금), 국제교육진흥원
- 2. 선발요강**
가. 선발인원 : 2명
나. 지원자격 : 학부과정 2-3학년 재학생(휴학예정자 제외)으로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진행방식 : 학부성적평가 50%·면접평가 50%
라. 신청서류
1) 2004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방일 연수계획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경력이나 기타활동실적 포함) 1부
3) 어학능력인증서(TOEFL·TOEIC·JLPT·JPT) 1부·소지자에 한함
4)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원서교부·접수 : 2004. 4. 1(목) ~ 4. 7(수), 연구처 국제교류실(본관 2층)
바. 면접일시 : 2004. 4. 8(목), 14:00 ~ 연구처 국제교류실(본관 2층)
사. 선정자 발표 : 2004. 4. 8(목), 개별통보
-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처

민법(물권) 특강

민법총칙에 이어 물권법특강을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국인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특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4월 9일 ~ 15일 (총 6회, 일요일 제외)
2. 시 간 : 오후 6 : 30 ~ 10 : 30
3. 장 소 : J401
4. 강 사 : 이창근 변호사 (전 태학관 민법강사)
5. 교 재 : 민법강의(김준호저) 및 프린트물(강의시 제공)
6.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문의전화 2260-8685)
7. 수강료 : 계산고시학사 사법시험반 입실료 1만원, 본교생 2만원, 타교생 3만원(100%출석시 환불)
8. 신청기간 : 4월 6일~4월 9일 17시까지
9. 기 타 : 본 강의내용에서 5월 고시강학성 선발시험 민법문제를 출제함.

고시지도위원회

이동병무상당실 개설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새롭게 바뀐 병역제도와 병역전반에 대하여 직접(대면)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국대학교에 재학중인 군미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04. 4. 13 ~ 14(2일간) 10시 ~ 15시까지
2. 장소 : 신관도서관 1구
3. 담당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총무처

학생회 보궐선거결과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치러진 학생회 보궐선거 결과 5개 학생회가 건설됐다.

불교대

김재동(불교4)·박동국(불교4) 조가 95.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7.8%, 반대 9.6%로 당선.

이과대

이학근(화3)·곽진영(수3) 조가 5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 반대 6%로 당선

법과대

조진우(법4)·김진주(법3) 조가 52.8%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3.2% 반대 4.8%로 당선

정산대

김영훈(컴공3)·김현정(멀티공3) 조가 52.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90%, 반대 5.8%로 당선.

예술대

이진영(영화4)군이 6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88.6%, 반대 9.9%로 당선

분관 점거 논란

학교 · 학생회 갈등 심각

원만한 해결 위해 이성적 대화자세 필요

분관 점거 후 학교측과 학생회측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로 인해 문제의 본질이 등록금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은 아닌가 걱정된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학생회의 분관 점거는 직원과의 충돌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예년과 같은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학생들의 농성장소인 법인 사무처에서 컴퓨터를 가져가면서 직원과 학생들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승호(국교4) 부총학생회장은 분관의 한 직원에게 “오후 7시 열리는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컴퓨터를 내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공문을 보내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해 컴퓨터를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사건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 직원은 담당부서에 이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으며 잠시 후 학생들과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항의의 의미로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학생처 폐쇄를 결정했으며 학생처장실에 있는 모든 집기를 들어내 입구를 막았다.

그러나 지난 1일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학생들의 농성장소인 법인 사무처에서 컴퓨터를 가져가면서 직원과 학생들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또한 한 교무위원이 한 학생에게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구자룡(야간영문4) 총학생회장은 “충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하지만 학생의 잘못”이라며 “대표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 한 교직원이 술을 마시고 학생처장실을 막고 있는 집기

를 치우는 과정에서 학생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던진 집기에 한 학생이 다쳤으며 이를 말리던 몇몇 학생들이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2일 학내 곳곳에 이 사실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고 이 직원의 공식사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측과 학생회 측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은 양측간에 쌓인 불신의 벽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앞으로 지난 1일에 일어난 사건들과 같이 감정적인 일들이 계속해 일어난다면 해결점은 점점 멀어지고 ‘학내분규’라는 최악의 사태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성적인 대화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사설

재단측 입장표명 촉구한다

등록금문제와 관련한 학교 학생회의 대립이 결국 분관점거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점거 후 양측의 수위를 넘긴 감정싸움은 이곳이 진정 대학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학내구성원 누구도 이같은 점거를 반길 리 없다. 농협과 산학협력을 체결해 불교 병원 개원준비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극단으로 치달은 학내분규는 이런 발전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회 역시 이런 상황까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끊임없이 요구해온 학생의견수렴과 재단전입금 확충에 대해 학교·재단측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태는 본질적으로 학교측과 학생회의 동반자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졌을 터, 이에 열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즉, 학교측은 학생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일방적인 7% 인상을 재고해야하며 학생회는 무조건적인 등록금결정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 2002년 점거당시처럼 학교측은 ‘점거하고 있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학생회도 ‘요구사안을 수용할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일관한다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소모전을 그만하고 학교 학생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재단·국가지원금 확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 사실과 법인사무처가 점거당했음에도 아무런 대화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재단측에 더욱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뜻밖에서 웃을 2번 던져 모두 ‘개’가 나왔다. 이때 말을 포개고 함께 가느냐, 한 말을 잡고 혼자 가느냐는 한 사람이 던졌는지 두 사람이 던졌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아무리 대립해도 학교 학생회 모두 ‘동국’이라는 한 배를 탔다는 사실, 서로를 잡으려하기보다 동반자의식을 갖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때다.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감사결과 긍정적으로 평가

예년에 비해 징계 줄어 ... 최고 경고조치

2004학년도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예년에 비해 징계 조치를 받은 단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번 새터 부정기 감사는 36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가 지난달 15일부터 총 2개 중앙자치기구와 11개 단과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야간강좌의 경우 자체적으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결과 △동원 △불교대 △경영대 △생자대는 징계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나머지 단위를 역시 주의 혹은 경고조치에 그쳐 지난해보다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대와 사과대의 경우 현재 비대위 체제로 학생

회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감사실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관련 단과대 대표자들이 감사 실시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우 총대 비대위원장은 “공문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총대 측의 실수”라며 “다음주 중으로 두 단과대 모

두 다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대는 새터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관계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됐으며 야간강좌는 오는 10일 감사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 이번 새터 관련 감사를 전학 대회 체제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표> 새터 부정기 감사 결과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징계없음	동아리연합회 불교대 경영대 생자대	
주의	총학생회	감사자료 제출 시한 넘김
경고	문과대 이과대 정산대 예술대	감사자료 제출 시한 넘김 감사자료 내용 미비
	사범대	감사자료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감미로운 환영 ...

사범대학(학장=한용환·국어교육학)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중강당에서 '200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신입생환영 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에는 △Bassoon 임현철 △Violincello 홍지영 △Violin 유진박이 출연해 연주했으며, 마지막 순서로 유진박의 화려한 전자비이올린 공연이 진행돼 보는이들의 환성을 자아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메아리

서울시의 큰 뜻

▲고려 중기 무신 이의방과 정중부는 ‘송문천무(崇文踐武) 타파’라는 큰 뜻을 품고 무신정변을 일으킨다. 이어 경대승과 이의민, 최씨정권에 들어설 때까지 90여년 동안 무신들은 그동안 문신으로부터의 멸시에서 벗어나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한편, 얼마 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측근비리 대통령 퇴출’이라는 대의(大義)를 내세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5공 시절부터 기득권을 누리던 한나라당과, 노 대통령과 결별한 민주당이 그동안 누려온 권세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전국 12개 대학의 유권자운동본부가 각 지역 선관위에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요청했다. 총 부재자신청 대학생도 6만 5천여명. 이제 정말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젊은 유권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유권자들의 열망에 서울시가 찬물을 끼얹었다. 현행 선거법에 부재자는 ‘주민등록지인 시·군·구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장기출타자’로 명시됐음에도 ‘서울 거주자나 거소를 총학생회 또는 학과로 표기한 자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생들이 부재자로 인

정받지 못해 일부 대학은 하한인원을 넘기고도 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워졌다.

▲시민·대학생단체의 끊임없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 완화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그대로’를 고수한 국회 정개특위에 이어, 서울시의 자의적인 부재자 기준해석은 대학생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을 선거법의 테두리에 가두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이토록 인색한 것일까. 부재자투표소 설치비용이 막대한 것인가. 아니면 학내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이 학업을 소홀해질 것이라고 우려해서인가. 결국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저해함으로써 ‘권세유지’라는 대의(大義)를 이루려는 기득권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닌가.

▲90년 간의 무신통치는 노비 증가와 하극상 풍조 등으로 인한 민중봉기를 초래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다수 국민은 분노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들이 품은 ‘큰 뜻’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는,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gu.edu

2004-1학기 단풍연(단과대학 풍물패 연합)

연습일정안내

기간 : 2004. 8. 31까지

장 소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풍연 연습실 (학생회관 지하 1층)								
대운동장	20:00~20:30	사	사					

1. 예외일자(5회로 제한)

NO	일 시	장 소	비 고
1	4월 10일(토) 18:00 ~ 19:00	만해광장	신입생 환영회
2	5월 20일(목) 20:00 ~ 20:30	대운동장	학기별 1회 실시하는 단풍연 판국 한마당(5월 28일)
3	5월 27일(목) 20:00 ~ 20:30	대운동장	공연 준비를 위한 주 1회 추가 연습
4	5월 28일(금) 18:00 ~ 23:00	만해광장	학기별 1회 실시하는 단풍연 판국 한마당

2. 풍물패 연습의 특성상 전체편(30분)은 불가피한 상황.

3. 이외의 경우에는 외부연습 및 공연일제를 불허하며, 일정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학생지도.

학 생 처

학생상담센터

「1학기 집단상담 안내」

고민 해결, 함께 해요!

집단상담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내 안의 자신을 만나 고민을 해결하고, 함께 한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만남의 장입니다.

◆ 집단소개

집단명	참가대상	일시
발표불안 극복 집단	발표할 때 가슴이 뛰고 불안한 사람, 발표를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사람	매주 목 2~4시
대인관계 향상 집단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싶거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매주 금 2~4시

◆ 기간및횟수

4월 8일~5월 21일까지, 매주 목·금, 각 집단별 7회씩 진행

◆ 접수및문의

4월 2일(금)까지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구내전화 3931, 3930)

동국사랑의 큰 실천!

동국대학교 자동차 보험 가입

동국대학교 자동차보험 가입은 기부자의 특별한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동국대학교에 기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국의 자동차보험을 모두 서비스하오니 상세히 비교하시고 상담하신 후 동국사랑을 실천하여 주십시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외협력처(02-2260-3794, 3883) 또는
(주)자동차보험주식회사(02-2192-89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인상

올해 역시 등록금문제가 어김없이 대학가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5%~10%의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 학교측과 학생회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교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편집자

무엇이 문제인가

왜곡된 사립대학 재정구조 개선돼야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2월에 비해 1.0% 상승해 작년 3월(1.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국·공립대 10.9%, 사립대 7.1%, 중·고교 4.5% 등 교육비 인상이 불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대학들의 주장과 달리 매년 물가인상률을 2~3배 웃도는 등록금인상이 오히려 물가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50년간 우리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시켜 왔다.

이러한 개인 부담은 최근 10여년간 “정부의 지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케한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 영역으로 상품화하고, 학생을 교육서비스의 수요자, 고객으로 국한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원리를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사회적 공공재다. ‘교육기본법’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인력을 채용하는 기업과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를 꾀하는 국가 또한 대학교육의 수혜자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비 부담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로부터 자발적으로 교육사업을 위임받은 사학법인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2002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재정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웃돌고 있는 반면, 법인전입금은 4.8%, 국고보조금은 3.4%, 기부금은 10%에 불과하다. 국가와 사학법인의 책임이 외

부 기부금보다도 못한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수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와 대학 당국이 말로만 ‘대학발전’을 주장할 뿐,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대학예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올해부터 전체 대학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오던 일반지원사업비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토지 및 임야 등 저수익성재산을 고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재단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입금을 내지 않고 있다.

동국대 역시 2002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의 76%를 수익률이 0.05%에 불과한 토지 및 임야로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사립대학들은 학생등록금이 대부분인 교비로 기본적인 시설투지는 물론, 병원 설립까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학생등록금에만 의존되어 있는 지금의 왜곡된 사

립대학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학발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요원한 길이다. 사립대학들은 학생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재단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높여려는 자구노력과 함께,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또한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200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민간부담 비율은 79.3%(99년)로, OECD 회원국가 평균(20.8%,99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는 미국(53.1%,99년)보다도 높다.

정부가 04년 현재 전체 대학 예산(2조9천억원)보다도 많은 30~40억달러(약 3조8천억~4조8천억원)를 미군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재정이 있다면 교육재정 확보부터 고민할 일이다.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본교 등록금 문제 분석

등록금 책정 관련 논의기구 구성 필요

정부와 재단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올해 역시 등록금과 관련한 학교측과 학생회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학생회(회장=구자룡·야간영문4)가 이사장실, 총장실, 법인사무처를 점거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최근 3년간 등록금수입은 11%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3%, 재단전입금은 30%나 감소함으로써 77.4%라는 등록금 의존률을 기록하고 있는 본교의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등록금 책정 역시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책정과정=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본교 역시 마찬가지이며 총학생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등록금 책정협의회’ 구성을 학교측에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002년 전입 총장과 ‘등록금책정협의회(이하 등록협) 구성

을 위해 사전모임을 갖자’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흥기삼 총장이 취임하면서 “학생들과 카운트 파트너로 등록금 책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총장의 의지에 따라 현재는 논의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렇지만 올해 일어난 등록금문제는 양측간의 논의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등록금협의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등록금협의 기구가 어느 수위까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지금과 같은 ‘단절’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관련 논의기구를 구성해 그 속에서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전입금= 본교의 재단전입금은 전체예산의 2.0%~3.0% 사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대로 본교의 등록금의존률은 74.4%로 사립대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운영에 대한 재단의 책임감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재단의 수익사업은 수영장과 전산원 뿐이다. 이는 본교 재단이 타대학보다 훨씬 탄탄한 재정구조를 가진 조계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재단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재단 이사들이 현실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김현태 이사장은 지난 3월 진행된 본지를 비롯한 교계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회계상 잘못 기입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재단전입금이 적지 않다”며 “불교병원 짓는 데 들었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재·종단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병원에 들었던 비용의 상당부분은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교비와 발전기금 등이다. 또한 재단전입금부족은 본교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금= 본교의 경우 연 평균 40여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학의 국고보조금이 30여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양호한 본교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현재 대학별 평가사업결과를 통해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한 대학이 교육부지원의 7%를 지원 받고,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지원의 50%를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상위권대학들을 제외한 대 대학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등록금은 그 특성상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교육부, 재단, 학교 모두의 잘못인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즉 정부와 재단이사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학교측은 학생을 하나의 학내주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등록금문제 긍정적 해결 사례

학교·학생간 지속적 협의 중요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관련 논의가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민주납부 등 대외보다는 양측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학이 비교적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등록금문제를 해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원광대의 경우 지난달 25일 입학 때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등록금 예고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원광대가 시행하는 등록금 예고제의 경우 일부 대학들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입학 전 4년 동안의 등록금 인상을 미리 확정·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학교측과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규모와 시설이 비슷한 전국 11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폭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미리 합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순천향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 고지 전 학교측과 학생회가 10여일간 5차례에 걸친 복지협의를 실시해 학교와 학생이 합의 하에 등록금이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초기 제시하던 인상 분을 학생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잠정 8.5%로 낮췄으며 서강대 총학생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향후 ‘정년 서강인 100대 요구안’을 만들어 학교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매년 새해 새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학교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갈등 대상인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학생들이 함께 하는 민주적인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운동부 경기 일정

◆ 야구부

- 대회명 : 2004 전국대학야구총계리그예선전 (3. 28(일) ~ 4. 11(일))
- 경기일정 및 경기상대 (장소 : 인천도원야구장)

- ▷ 4월 7일(수) 09:30 : 한라대
- ▷ 4월 11일(일) 14:30 : 제주산업

※ 야구부는 D조에 편성되어 있으며 7개 팀과의 리그전을 통해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진출시의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 인천도원야구장은 1호선 도원역에서 내려면 바로 있습니다.

◆ 축구부

- 대회명 : 2004 전국총계대학축구연맹전 예선전
- 4. 11(일) ~ 4. 15(목), 전남 광주

- 경기일정 및 경기상대, 경기장소
- ▷ 4월 11일(일) 14:30 : 제주대, 광주상무공원운동장
- ▷ 4월 13일(화) 12:30 : 성화대, 광주상무공원운동장
- ▷ 4월 15일(목) 14:30 : 경기대, 광주종합운동장 보조구장

※ 축구부는 6조에 편성되어 있으며 4개 팀과의 리그전을 통하여 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본선진출시의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체 육 부

2004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0명)
2. 지원자격
 - 일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5. 7. 31 ~ '79. 8. 2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5. 15까지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서약서 각 1부	사. 사진 4매(4×5cm)
나. 수능성적(원접수) 1부	아. 재정보증 관계서류
다. 교과생활기록부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 교과 생활기록부 1부	차.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차. 가산점 증명서류 각1부
마. 복부연장 지원서 1부	
바. 효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군정학생
지원서 교부 / 접수	'04. 4. 1 ~ 5. 15
체 령 검 정	5. 24 ~ 5. 29
신체검사· 면접평가	5. 31 ~ 6. 12
인성검사/심원조회	7. 12 ~ 8. 31

6. 최종 합격자 발표 : '04. 9. 1 ~ 9. 4
7. 특전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가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 (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득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수 있음
 - 기혼자 군속수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 이용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8537)

제 112 학생군사교육단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본회에서는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목 적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화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2. 수집 기간	2004년 1월 - 2006년 4월 까지
3. 수집 장소	동국대학교 박물관
4. 교사자료 수집내용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찰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가. 선각자 : 이보담, 김월열, 김우은, 박보봉, 김석용, 홍원초, 김보문, 김포용, 김현일(9인) 나. 사 찰 : ▶ 대법산 : 원흥사(서울) ▶ 중법산 :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공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진),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림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2) 문헌자료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외보, 학생활동문건 등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페넌트 등
3) 기념품	교표, 교기, 우승권,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4) 복식자료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티셔츠 등
5) 사진자료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6)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회화, 서예, 유품 등
7) 집기 및 비품 자료	각종 인장, 현판 등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특필기고

자연 속의 동국대학교, 그 속의 자연 '배움'에서 '행동'으로

비록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21세기 현재에도 지구 곳곳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산업혁명-혁명이 아니라 2차 산업으로 서서히 국가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에 따라 사회와 생활, 개인의 사고가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지만-이 전지구적 현상으로 전개되면서 전지구적 차원의 '기술탈레머'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술은 이미 일상생활의 구성요소까지 파고들어 도구와 기구, 기계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인식과 존재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리라(마르크스)는 야무진 희망을 주었던 기술이 바야흐로 노동과 경제차원의 문제부터 인조(人造, man-made)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인조환경, 즉 현대도시와 건축은 거의 전적으로 산업혁명의 소산이라고 볼 때,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모더니즘에 기초한 기존 도시건축의 철학과 가치를 생태적 가치로 재고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 약 200개 대학 중에서 가장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어찌보면 21세기 한국 대학캠퍼스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학교의 주거환경 상황이 곧 동대 구성원의 존재상황(하이데거)이라고 한다면, 동대 구성원은 현 캠퍼스의 상황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사이버 근대성, 전형적 근대성, 역사성과 지역성, 포스트 모던, 친환경 생태적 지구, 화석연료고갈과 환경위기 시대를 맞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주창한 ESSD,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비추어 우리 캠퍼스를 다시 생각하여야 때가 되었다.

전세계 에너지의 50%정도를 건물이 소비(냉난방 45%, 시공 5%)하고 있으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보충할 경우 이 중 50-85% 에너지 절약 가능하다고 한다(내 연구실의 벽체 열관류율은 현행 법규정치의 무려 4-5배). 미국 일부 대학에서는 모든 전기요금을 자체 생산하여 지급자족하고 있으며, 독일 등에서는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게 되팔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실행 중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와 건축을 영국, 브라질,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각종 대중매체에서 접하고 있다.

철학은 물질에 따른다. 물질이 없고 경험은 없는데 철학과 사상은 있다면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위로부터 강요된 사상과 철학일 것이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형이상학적 문제에만 관심이 머물러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유교적 전통이라 생각한다.

'도시 내 소규모 생물서식공간(비오톱)사업'(한국녹색문화재단)과 '육상녹화사업', '푸른 서울 가꾸기', '걸고 싶은 거리 만들기'(서울시) 등의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남산의 동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서울의 열섬효과를 줄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대학소비에너지를 줄이고, 바라보는 자연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자연을 제공하는 일이 '나 스스로 변화자'는 동국대 100주년사업을 발전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학생복지 차원의 육상녹화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남산과 서울의 제 모습을 찾는 일에 동참하는 일 또한 우리 학교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아닐까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는 일은 미래 대학의 역할이라고 한다. 부도산의 길에 대해 매달려 고정자산 확보에 전념하여온 전국 사립대학의 관행

을 이제 생태도시건축 및 조경을 통하여 우리 주변과 자연을 돌보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으로 그 관심을 바랄 때가 되었다.

4월 중순에 그 결과가 발표될 동국대 옥상녹화 및 생물서식공간 지원사업은 남산의 녹지체계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돌보는 대학의 물리적 환경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근대도시와 시골에서 지라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가꿔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남산순환로와 연계시켜 서울시민에게 도심 내 소규모생물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여름철 서울도심의 열섬현상을 누그러뜨리는 효과와 분교의 에너지절약도 기대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2004년 식목일을 맞이하여 거창한 사상은정보보다 남산에서 자라나고 있는 별 불일 없는 나무, 풀, 벌레 이름을 하나라도 새로 외우시다. 지금은 생태철학을 넘어서 생태운동과 생태적 삶이 필요한 때이니깐요. 이름은 관심의 시작이고, 관심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전영일
공과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동순 선학과 교사의 사상가 이야기



깨달음 통해 자비 실천한

천태대사 지의
(1690-1756)

자비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慈悲라고 글자를 써보자. 사람들은 불교를 자비라는 단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비의 두 글자는 모두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와 야 한다고 마음 심(心)을 바탕에 두고 있다. 더구나 사랑하되 슬픔과 비애를 느끼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한다.

진실한, 그리고도 지극한 사람의 정신을 찾아 중국 남북조 시대를 찾아 가보자.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할 때까지 피비린내 나는 군용할거의 시대였다. 천태대사인 지의는 어릴 적 살던 곳이 적군에 의해 급습 당하고 부모와 친지들이 눈앞에서 살육을 당할 때, 어린 눈의 그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18세인 지의는 대불상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맹세하였다. 이 세상을 넘치는 자비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극구 말리는 형을 뒤로하고 출가사문의 길로 나섰다. 아마도 어릴 적 가까운 절에 놀러갔을 때 많은 스님들이 다같이 '관세음 보살...'을 외우는 장중한 소리가 그를 지금의 불문으로 이끌었으리라.

그 맹세가 얼마나 컸던지, 덕안은 사미를 거쳐 계를 받고 스승을 찾아 쉽 없이 경전공부를 하고 '지의'라는 법명을 얻게 된다. 어떤 힘이 그를 추진시켰는지 당시 인도로부터 수입된 경전 대부분을 읽어버렸다.

그리곤 경전이라는 자연에서 자비를 찾고 또 찾았다. 반대 한 대장경을 모두 조사하고 탐구하고 분류하여도 그 자비는 마음으로 와 닿지 못했다.



진정한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만류하는 국왕과 대중들을 뒤로하고 천태산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모르는 밀행 즉 두타행을 지속하던 어느 캄캄한 밤. 번개와 천둥 그리고 벼락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신비로운 노승. 그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아직도 어릴 적 원한에 사무쳐 있는가!"

어릴 적 맹세를 잊지 않았지만, 그 맹세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느낀 그 순간, 캄캄한 밤임에도 세상은 대낮처럼 밝게 보이는 것을. 후일 사람들은 이를 두고 천태산 '화정봉 깨달음'이라 하였다. 그는 다시 시작했다. 탐구했던 경전을 바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비를 체득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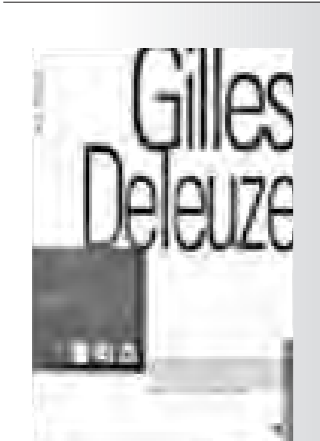
체득이란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止], 그리고 관조하는 지혜를 개발[觀]하도록 해주자. 그리고 그는 단계적 지관, 무단계적 지관, 원돈지관을 비롯하여, 삼매에 들어가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과 공(空)의 세계를 넘어 원운무애에 도달하는 치밀한 수행실천의 지도를 그리고, 이를 천태사상으로 완성시켰다.

오늘날까지 동북아의 수많은 선지식들 중 천태대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실까? 사람이 동사이듯, 자비란 철저한 수행으로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가르친 천태대사는 진정한 자비의 화신이었다.

학술 기고를 받습니다. 원고지 8~10매 분량의 간추린 논문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지역이나 분야는 제한이 없고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들뢰즈

박성수 저
이름 출판 펴냄



Book 카페 무한대의 사유와 이미지 - 연장에서 생성으로

들뢰즈(Gilles Deleuze)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에서 자신의 철학적 개념과 사상을 사유하였다. 흔히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가장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형이상학적 대상이다. 그러나 영화는 감각과 정서를 통해 형이상학적 사유를 넘어서며, 지금까지 사유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영역을 사교하게 만든다. 박성수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들뢰즈의 사유방식을 소개한다. 박성수의 '들뢰즈'에서 1부는 들뢰즈의 저작 '영화', 2'를 토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감각의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영화와 회화라는 두 영역을 다루는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은 '내재성의 평면'이다.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코기토'를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인 지각과 시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각을 넘어서게 해준다. 이로써 영화는 보다

더 절대적 이미지 체제로 다가가게 해준다. 또한 영화는 이미지의 무한한 교환과 증폭을 통해 각각·시간·각각 경계를 흐릿하게 하여 시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시간 이미지는 전체의 연속과 통일을 향해 구성되고 계열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지는 사운드와 더불어 계열을 형성하지만, 이 두 계열은 서로 통일적으로 결합되고 유사성으로 모방되기도 않는 관계이다. 각자의 계열은 서로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확대됨으로써, 영화의 이야기 자체도 계열화되게 만든다. 이로써 영화의 이미지는 읽기의 대상이 되고, 하나의 사건이 된다. 카메라와 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무한적 이미지의 세계가 바로 들뢰즈가 제시하는 내재성의 평면이다.

회화에서 내재성의 구도는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의 혼재, 힘으로 감각되는 다이어그램 등을 통

해서 드러낸다. 각 계열들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환기시키고 지우며 끝없이 내재성의 평면으로 접근한다. 이 방식은 이미지 존재론에서 구상과 추상의 이원론이 아닌, 존재론적 일원성과 다원적 비가시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들뢰즈'에서 박성수는 전반적으로 들뢰즈를 '해체' 철학자라고 여기고 있다. 들뢰즈가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개념으로 무한한 사유와 이미지를 연장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이미지와 개념으로 인해 들뢰즈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은 연장이 아니라 '생성'이다. 영화에서 내재성의 평면은 이미지들의 무한한 확장인 하지만, 들뢰즈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미지들이 구성되고 서로 관계맺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뢰즈는 크리스탈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이중운동과 이미지의 생성이라는 '이미지의 양화(量化)'와 '실체적 양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충하자면, 이 크리스탈 이미지는 기억을 현재화하며 또 다른 불분명한 깊이를 보존하고 채우는 시간의 이중운동으로, 이로 인해 이미지의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고 발전되며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는 근대 영화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들뢰즈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들뢰즈의 조언처럼, 책은 "환경"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 속에서 "관계"를 생성시키는 것은 모두 독자에게 달려있다.

윤연정
영어영문학 박사과정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1 북한학의 문학과 문예이론

한국문학연구신편 제 10권
한국문학연구소 편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엮은 것이다. 있는 그대로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것은 분단이 빚은 서로 다른 역사의 궤적과 삶의 풍경을 이해하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상상하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문학과 문예이론>은 북한문학을 규정하는 문학제도와 문예이론을 중심으로, 장르론과 작품론 그리고 연구전망 등을 폭넓게 담아내었다.



2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한국문학연구신편 제 11권
한국문학연구소 편

이 책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동아시아 담론을 둘러싼 비교문학 연구의 소중한 성과들을 한데 모았다. 근대 이후 서양문물이 급속히 밀려들면서 빛전야에 밀려나 있던 동아시아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서구적인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오랫동안 가래온 문화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비교문화적 관점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3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태연·박영호 공저

이 책은 미국식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분권형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현실적 작동원리, 운용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 전국민적 정통성에 독립적 기반을 둔 초당적 실권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수반'과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된 당파적 실권 총리로서의 '정부수반'이 분권적으로 공존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다.



4 종교사회복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이혜숙 저

이 책에서는 기독교계, 불교계, 천주교계 등 각 교단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 <종교사회복지>는 현장의 역사가 유구함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현실에서 <종교사회복지>를 출간하게 된 것은 종교계와 사회복지계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5 원예·조경식물의 학명

조경식물학을 공부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식물의 학명이다. 식물의 학명을 읽고 이해하고 읽기한다는 것은 영어 단어 외우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말하는 식물의 이름들을 향명(鄕名)이라고 해서 지방마다 다를 수 있고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



6 계몽의 기획

근대정치사상연구
정치외교학과 교수 황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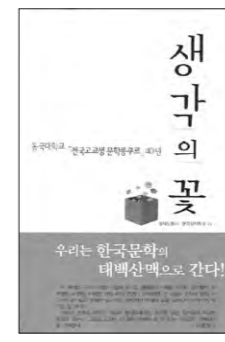
이 책은 17~18세기에 태동하여 19~20세기에 새로운 세계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몽주의 또는 계몽기획에 관한 연구논문들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여러 학술잡지를 통해 발표된 원고를 기초로 손질한 것이다.



7 영국 낭만주의 문학 연구

전 영어영문학과 교수 허천택

이 책은 영국 낭만주의문학 연구서로서 William Wordsworth를 비롯한 당대의 주요 시인들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출간하게 되었다.



8 생각의 꽃

동대신문사·문예창작학과 역음

이 책에는 우리가 확장 시절에 만나고 경험했던 사물과 생각의 조각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문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과거를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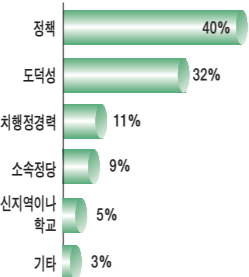
4·15 총선과 대학생의 만남,

대학생 정치참여 열기 어느때보다 고조 후보자 몰라 내면적 정치 무관심은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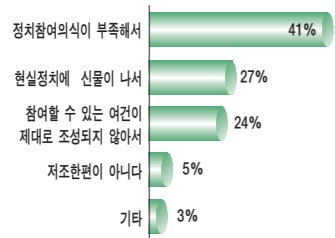
4·15 총선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정치에 무관심을 보였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참여열기가 뜨겁다. 이에 본사에서는 본교 재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투표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편집자주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면에서 이어짐.

이번 선거의 전체 투표율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43.3%가 지난 16대 총선(57%)보다 높은 70%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보다 낮은 것이라는 의견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한 20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지난 총선(37%)보다 높은 것이라는 의견이 92%에 이를 정도로 탄핵 시국 이후 젊은이들의 정치참여열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후보 출마자를 '모른다'는 답변이 60%를 차지해 뜨거운 정치참여열기와는 달리 아직도 내면의 정치적 무관심은 쉽게 극복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들의 고조된 정치참여의식이 현재 보수 야당의 탄핵에 맞서 '잠깐 끓어오르는' 현상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동안 대학생의 정치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으로서는 응답자 중 41%가 '참여 의식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했으며 27%는 '현실정치에 신물이 나서'라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답변은 '투표할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24%)'이다. 높은 선거연령과 엄격한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등

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정치참여를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참여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후보 선택 기준' 항목을 살펴보면 '정책'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도덕성(32%)과 정치·행정 능력이 뒤를 이었다. 구시대적 선택기준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는 5%를 차지하는 데 그쳐 젊은 층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주의로 대표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학생 유권자의 다수가 정책선거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20세 투표연령을 18~19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7%를 차지했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정치와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연령이기 때문'(50.7%)이라고 답한 의견이 많았다.

한편 낙선운동에 대해서는 53%의 학생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동참할 계획은 없다'라고 대답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적극 동참하겠다'는 응답도 26.33%에 이르

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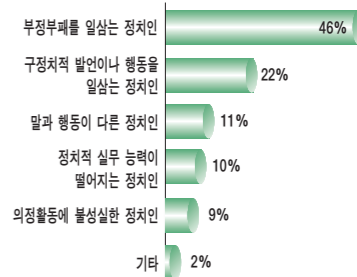
가장 우선적으로 낙선돼야 할 정치인으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을 46%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고 이어서 '구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는 정치인'(22%),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11%), '정치적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정치인'(10%),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정치인'(9%)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선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0%가 '낙선대상자의 정책이나 성향에 따라 투표를 고려할 것', 36.33%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 답해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자 선정에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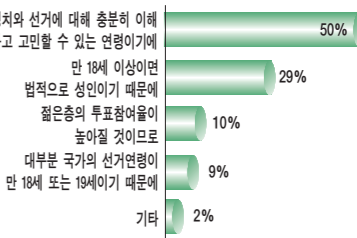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 탄핵 시국 때문인지 어느 때보다 대학생의 정치참여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잔존해 있거나 단순히 분위기에 따른 것 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약 이같은 참여일 경우 정치개혁은 다시 한번 외침으로만 머무를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낙선돼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만평

성지영 tjdwud11@hanmail.net



의식없다 탓만말고 제도개선 우선하라

대선, 총선은 고사하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아 선거가 무산돼 학생회 구성을 못하는 대학이 허다한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이다. 물론 기성정치든 학생정치든 대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선관위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많이 꼽는 이유로 67%가 정치불신을 들고 있다. 이런 통계는 20대 투표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치무관심, 의식부재도 심각하다. 어쨌든 선거 때만 되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20대의 투표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화두이다.

기성정치인들은 결국 누가 표가 되는가, 누가 자신들의 당락을 결정짓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꾼들에게 있어 "투표도 안 하는 사

람들"이 하는 말은 들어주는 척만하고 실제 정책결정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결국 정치불신이다. 무관심, 의식부재이든 투표를 하지 않은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부정 부패한 정치꾼들은 무책임한 유권자들의 방임 속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고, 불의의 짝은 어느새 자라 베어 버리기 힘든 거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20대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의식 탓으로만 돌리기에 20대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 현재 선거연령은 만20세 이상이다.

만20세는 투표일이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22세이고 대학 3학년해 해당한다.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결혼도 하고, 성인영화도 보는데 유독 선거권만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선거연령은 132개국 18세

이고 20개국 19세이며 2개국만 20세이다. 또 선거법으로 4월 3째주로 지정된 선거일은 모든 대학이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공부를 접어 두고 투표장까지 가야하는 중대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대학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의 투표권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학과 대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아니 일용직, 서비스업 종사자, 해외유학생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만든 제도다.

선거법의 투표제도는 결국 국민들이 투표에 더 많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편의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편의나 정치권 이해관계 등에 의해 법과 제도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우편투표제, 팩스투표 등이 일상화 되어

있고, 투표 당일 사업, 결혼, 레저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사전 투표도 보편화되어 있다.

IT강국이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자기 지역구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인명부 제도도 전자인명부제 도입을 통해 어느 지역구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자투표제 도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캠페인, 편의제공 등 전통적인 유권자 운동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인 투표 참여권을 되찾아 행사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다.

향후 대학생 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위에서 열거한 투표편의제도 개선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진오
부재자투표소 운동본부 사무국장

당신이 청춘으로
이 땅을 지킬 때,
농협은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으로
이 땅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농산물시장과 금융시장이 열려있는 지금,
누군가는 우리의 생명산업과 금융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농협은 순수 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품질향상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여 이 땅의 생명산업을 보호하고,
100% 순수 국내자본의 은행, 보험, 카드, 디지털 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로 이 땅의 금융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 더 든든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농협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uman Bank, Human Life

www.nonghyup.com

준비 되셨습니까

진보정당과 대학생

둘 사이에는 '통하는 것'이 있다!

'1인2표 정당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는 이번 4·15 총선에는 어느 때보다 진보 정당의 원내의석 차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 유권자들이 특히 진보정당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진보정당 역시 대학생 관련 정책을 상당수 제시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으로 불리는 민주노동당, 녹색사민당, 사회당의 대학생 관련 총선 공약 등을 살펴본다.

▲민주노동당=지난 2000년 1월 보수정치의권 민생 파탄 정치에 반대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당되었다.

대학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7대 교육현안 대책 4번째로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민주화'와 교육 상품화 반대가 제시됐다.

이 중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 후불제·분납제 전면 실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Need-Base제 도입 △장기적 등록금 완전 무상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총장 간선제 폐지, 총장선출직선제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녹색사민당=국민복지·사회평화·민족도약의 새 세상을 목표로 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 관련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전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실업 문제해결 차원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사회당=역사의 진보와 함께 하는 당이다. 98년 11월 창당하였으며 전국 곳곳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생과 관련 공약으로 '청년실업 급여 지급'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내세웠다. 또한 현 정부의 인턴사원 지원책이 단순한 아르바이트 제공에서 그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인턴사원제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현재 실업급여가 노동할 의사가 있는 모든 실업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실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한편, 기존의 원내 정당들이 내놓은 대학생에 겨냥한 정책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은 '통합적 청년실업대책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백만명 청년실업대책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의 정원의 3%, 총 1만 2천명 고용보장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공공 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의무 채용 △군 사병 전역 3개월전 직업훈련 실시(1만 5천명) 등이 주된 공약이다.

민주당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문육성사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수도권과 지방소재 우수 대학 선정 집중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시간강사 연봉제' 도입 및 4대 보험 보장도 공약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원내정당들은 진보정당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생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정치 세력이 대학생들의 투표권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에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zababo@dongguk.edu

캠퍼스, '정치'를 말하다

학내 곳곳에서 정치주제로 토론 벌여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대학생 정치 참여' 열풍이 본교에도 불어왔다. 여기 저기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 꽃 사이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여명과 민주법학회 등의 동아리·소모임 등지에서 '노 대통령 탄핵' '17대 총선 전망'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일반학생들도 토론의 장에 동참해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길기용(경영2) 군은 "요즘 주변에서 정치에 무관심하던 친구들까지도 한 번씩 '총선'을 이야기한다"며 부쩍 높아진 정치에 대한 열기를 실감한다고 말한다.

탄핵반대 성명 등 정치사안에 관한 여러 대자보도 눈길을 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지나가다 얼핏보고 공감이 가는 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특히 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 권리를 찾자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이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정치관련 대자보도 쉽게 지나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이후 갑자기 높아진 대학생 참여 바람이 '냄비열풍이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매체비평연구회의 전지혜(교육3) 양은 "이번 투표가 지난 번 대선 때처럼 이회창 후보가 없어서 노무현 후보를 투표하려 했던 것과 같은 한순간적 열기가 아니냐"며 "이번 총선투표일기도 전체적인 대학생들의 의식 향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정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의식을 높이려면 의식 뿐 아니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최운혁(문정1) 군은 현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그는 "국방의 의무 등은 주어지는데 정치참여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거 연령을 낮춰야 대학 1,2학년들도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재웅(통계학4) 군도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소신과 가치관을 지녔다"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일부 3,40대보다 오

히려 1학년들이 소신껏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층 높아진 대학생의 정치참여열기에도 지난달 31일 마감된 부재자 투표소 최종 신청인원은 투표소 설치 가능인원인 2000명에 약간 못 미치는 1500여명에 그쳤다. 지난 총선 부재자 투표소 신청 인원인 46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열풍은 비단 본교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한양대와 고려대 등을 비롯한 12개 대학에서 각각 2천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고, 이외에도 70개 대학 6만여명의 대학생들이 부재자 투표 신청에 동참해 "대학생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교의 부재자투표 신청운동이 '2%'가 부족하지는 않으나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 수와 지방 학생의 비율 등으로 미루어 본교와 비슷한 건국대는 2000명을 넘겨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반면 본교는 설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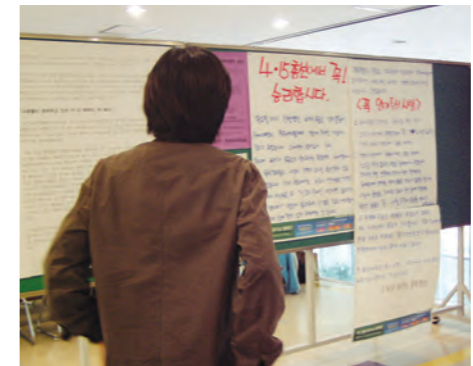
건국대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유권자 운동본부'를 조직해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 신문사 등 여러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치밀하게 부재자 투표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반면 본교는 상대적으로 대자보 등을 통한 소극적 홍보에 그치고,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족사 연구회 회장인 박철우(경제2) 군은 "부재자 투표 신청일이 마음대로 바뀌고, 장소도 일정치 않은 등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부재자 투표 신청소 설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제 캠퍼스에서도 투표하는 시대가 왔다. 16대 국회에 근조를 말하던 그 입과 뜻을 통해 탄핵반대를 주장했던 그 손으로 4월 15일 다시 한 번 '개혁'을 일으킬 때다.

설윤진 기자
dbsswls@dongguk.edu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시민 감시단 "깨끗한 정치 만들겠다는 목표있어요"



동하고 있다.

- 시민감시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 = 시민감시단에서도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있다. 각 정당 사무실의 활동내역을 감시하는 '지역전담반',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경우 밀착 감시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막는 홍보를 하는 '지역순회반', 각 정당이 하루 사용한 선거비용의 내역을 수집하는 '비용수집반', 후보자들과 다소 거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활동하는 '기동반' 등이 있다.

이중 지역순회반을 맡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선거법위반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주로 오전 출근길에 선거유세활동을 감시하고, 오후에는 노인정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선거법위반에 대해 알린다. 이런 오전 오후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들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 감시단원 활동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 = 이번 선거부터 선거법이 각 정당의 선거비용과 내역을 수집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복잡해졌다.
- 또 이번 선거에는 특히 대규모 유세보다 후보자 개인이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감시활동도 후보자를 밀착 감시하는 형태로 바뀌어 더욱 분주해졌다. 때문에 더 많이 발로 뛰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선거법이 지난 번보다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이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규영(41·주부) 씨를 만나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았다.

-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 =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는 차떼기가 나타나는 등 여러 선거법위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결코 이런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고 조급이나마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활

이념과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성찰

비전향 장기수들의 진솔한 삶 담아내

“이 지구상의 어머니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들을 나오려거든 정말로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을 낳으라는 거야. 그리고 구두 만드는 사람은 깃트머리를 좀 말랑하게 하란 말야. 내가 구두 깃트머리에 맞아 다리가 다 이렇게 죽었다고” 김영식씨는 다리를 틀주며 삶이 죽은 것을 보여준다.

그는 왜 그토록 나이팅게일을 외치고 구두 닦을 하는 걸까. 그는 62년 납과련 연락선의 무전수 출신이다. 쉽게 말해 간첩. 그는 간첩이란 이유로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폭력과 협박 속에 갖은 고통을 겪었다.

그것이 김영식 씨 뿐이라. 많은 이들이 모진 삶을 살았고 그 중에는 30년 이상을 감옥에서 산 사람들도 있다.

영화 ‘송환’은 이들과 같은 간첩,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김동원 감독이 비전향 장기수들과 12년을 함께 하며 찍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 사실적이고 진솔함이 느껴진다.

어떤 이는 영화를 보며 그들이 빨갱이니까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빨갱이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영화는 장기수 할아버지들의 생활을 밀착한 것이다. 그들은 출감해 요양소나 빈민촌 어딘가에서 살아간다.

우리와 달리 생가지도 않고 우리를 할아버지와 같이 다정다감하다. 가끔 북의 사상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빼고, 장기수 할아버지들은 사상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들은 남측 사상을 강요받고 그들의 신념은 잘못됐고 그래서 꺾었다고 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데 내 생각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라고 한다. 어느

정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만 과도한 폭력과 협박이 가해지자 생각은 조금씩 흔들린다.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30년 이상 고향에 갖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뀌지 않았음에도 바꿨다고 속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하지만 엄연히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자행된 일이고 아직 진행중인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에게는 살아 가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다. 그것이 사회주의이건 민주주의이건 자신 안에 간직한 것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일 뿐 타자가 간섭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비전향 장기수들은 당연한 듯 침해받았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무참히 짓밟혔다.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단지 우리와 생각이 다를 뿐인에도.

하지만 분단이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목살된 듯하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평행한 두 직선에게 꼭지점이 없는 것처럼 남과 북이 만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영화 ‘송환’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경보음을 울린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그들도 또 하나의 ‘우리’였다”

영화 ‘송환’은 ‘마치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상영시간 내내 관객을 영화 속에 몰입하게 했다. 영화 관람 뒤 이어진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자리. 여느 시사토크처럼 감독, 출연자들의 화려한 ‘쇼’가 아닌 진솔한 만남의 자리였다.

“그냥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편한 복장의 김동원 감독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대 바닥에 걸터앉는다. 거추장스러운 의자보다 바닥이 편하다는 그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 아직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비전향 장기수들이 송환된 후 이곳에 남아있는 정향 장기수들의 송환 외침을 환영중이죠. 전향 장기수들은 강제 전향한 것에도 죄책감이 지금까지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차 송환 다큐가 될지 휴먼 다큐가 될지 아직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남 모를 아픔을 카메라에 꼭 한번 담고 싶습니다.

나지막한 음성으로 조용히 감담회를 이끌어 가던 그는 끝까지 관객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했다. 영화가 드라마적 구성으로만 흐르는 것을 막고, 사람들 삶의 과정을 실제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을 선택했다는 김동원 감독. 그에게 다시 한번 관객과 감독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지탱하는 것이 바로 ‘사람’임을 보여주는 또 한편의 따뜻한 감동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기대해 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비전향 장기수를 다룬 영화 ‘송환’ (좌)과 김동원 감독(우).

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편안함으로 관객을 대했다.

- 장기수를 영화로 다루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 지난 92년 비전향 장기수 김석형(당시 78세/30년 복역)씨와 조창순(당시 63세/30년 복역)씨가 출소 후 저와 같은 동네로 오시게 됐어요. 이후 비전향 장기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들의 생활을 별다른 기획 없이 무작정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후 내가 겪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념과의 싸움을 느낄 수 있었다.

30년 동안의 감옥생활에서도 결코 무뎠지 않았던 할아버지들의 굳은 의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송환’을 보고 난 후

△사상과 이념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일반적인 의미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사상이건 이념이건 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념이 인간을 지탱할 수 있음을 알았다.

삶이 고귀할 수 있는 건 옳다고 생각한 일

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분단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 문제는 우리에게 민감한 현안이다.

이 다큐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장기수 문제 같은 이념에 관련한 부분이 진정 예민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를 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민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됐다.

△김성명 씨 어머니 말씀, 임종을 맞던 분이 남긴 말, ‘한 때는 동지의 죽음을 부러워도 했었지만’이라는 조 할아버지의 말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다큐의 힘, 어떤 진실을 내게 던져주어 감사하다.

△‘비전향 장기수’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나에게 사상과 이념을 넘어 한 민족으로서, 인간으로서 송환은 큰 감명으로 다가왔다.

“이제 생존권마저 위협하는가”



행사에서 한 학생이 등록금 인상 반대 피켓을 들고있다.

“어머니 등록금이 비싸서 죄송합니다”

최근 분교를 비롯해 연세대, 한양대, 한성대, 덕성여대 학생회가 대학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폭정에 항의하면서 분과 점거에 돌입하는 등 대학 측과 갈등을 빚고있다.

이렇게 등록금 문제로 여러 대학가가 떠들썩한 가운데 ‘4.2 대학생 행동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종로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등록금 동결! 청년실업문제해결! 국회 해산’을 외쳤다.

“드라마, 시트콤에서만 보던 낭만적인 대학생 활이었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막막해졌습니다”

덕성여대의 한 새내기 학생은. 부푼 꿈을 안고 들어온 ‘대학’이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새내기들에게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이경호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매년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졸업해도 빚 갚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등록금문제와 더불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됐다.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은 “현재 청년실업이 6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을 해도 사회에 이상적으로 기대해준 비정규직과 여성사원의 아픔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참가자들이 ‘5년간 급등한 등록금 고지서’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쫓는 상징의식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는 해마다 같은 것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지만 여지껏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해결,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만큼 교육부와 학생들의 대화자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무엇보다 신중한 검토와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황주상 기자

hiso228@dongguk.edu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燈) 달기

동국사랑, 손모아 마음모아...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한데 모아 동국의 도약을 염원하는 「건학100주년 동국도약기원 100만 등 달기」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의 헌등이 2006년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중심대학으로 웅비하는 100년 동국과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와 복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동국사랑에 한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참여안내

- 참여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의 정성을 소중히 접수하여 헌등씩 헌등함
- 접수기간
2003년 8월 ~ 2006년 5월 8일
- 부동산,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수증물품도 가능

- 무통장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조흥은행 : 313-03-002943
외환은행 : 065-13-19061-0
신한은행 : 216-05-005036
국민은행 : 068-01-0373-353
제일은행 : 107-10-119210
우리은행 : 064-032276-01-004
우체국 : 012328-01-001567
- 지로접수 : 지로번호(7606368)

- 헌등하신 분의 명패는 본교 정각원에 보존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동국대학교 대각전에 부처님을 봉안하여 드리며, 동국VIP카드를 발급하여 본대학교 부속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비 할인혜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위풍당당 동국인

연합뉴스 정치부 맹찬형(철93졸) 기자

'인생의 맛' 전하는 新 맹물기자



하는 일이 아무지지 못하고 싱거운 사람을 일컬어 흔히 '이 사람 맹물 같네~!' 라고 한다. 하지만 싱겁기는커녕 삶의 양념을 고루 담아 인생의 진술한 맛을 전하는 '신(新) 맹물기자'가 있다.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 맹찬형(철93졸) 동문이 그다. 그가 맹물기자로 불리게 된 데는 낱다른 까닭이 있다.

지난 99년 10월경 발생한 공군기 추락사건의 경위를 밝히려 했던 그는 언론 접근이 어려운 국방부를 끈질기게 취재한 끝에 기밀대신 물을 주입했다는 추락원인을 밝혀내 것이다. 이 기사로 국방부의 은폐사실을 밝혀내 특종을 보도한 공이 인정돼 한국의 풀리처싱이라 할만한 제3회 한국기자상 대상과 제4회 삼성언론상 보도부문 등을 수상했다. 이후 맹 동문은 이 기

사로 인해 '맹물 전투기'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면서 '맹물 기자'로 통하게 됐다.

맹 동문은 군 복무 시절 "시민의 힘을 키우고 사회적 담론을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소박한 포부에 따라 기자의 꿈을 품었다고 한다.

특히 그가 갓 입학한 86년도는 대부분의 대학인들이 '독재타도'를 외쳤던 한국현대사의 암흑기였다.

맹 기자 역시 시위에 참가해 구류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87년 6월 항쟁 때, 돌에 맞아 생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비 오는 날이면 욕심겨려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곤 한다. 그는 "시대가 변한만큼 현재 대학생들이 386세대와 똑같은 아너더라도 공통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는 필요하다"며 현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연합뉴스 입사 후 사회부 기자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광 KAL기 사고와 캄보디아 베트남 항공사에서 발생한 원광대 의뢰지 원단 사고 등 가장 발 빠르게 사고 현장을 전했다.

특히 대만지진 때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취재를 계속해야 했다. 이 당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한국 119 구조대가 아이를 구출하는 현장을 취재해 생생히 전하기도 했다.

맹 동문은 "언론은 사회의 모든 갈등이 풀리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융합 유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완충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회가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4·15 총선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어느 때보다 '반성과 자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금'이란 드라마에서 장금의 스승인 장덕이 장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고 열정적인 것이라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볼 겁니다."

앞으로 외국 특파원이 되어 로이터, AP 등 해외 통신사들과 직접 경쟁해보고 싶다는 맹 동문.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꽤 젊다는 그의 각오에서 20대 젊은이의 열정이 엿보인다.

설윤진 기자
dbswls@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벚나무에게 얻은 삶의 교훈

명진관 옆 프라의 늙은 벚나무들이 심상치 않다. 하루가 다르게 가지끝 꽃눈들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수두를 앓는 어린아이의 몸집만 하듯, 그것도 붉은 색의 울망줄망줄 꽃망울들이 수도 없이 커오른다.

상록원으로 오르는 계단위에 선 한 나무는 성미 빠르게 특특 그 꽃망울들을 짜내고 있다. 어느 결에 벚꽃들 그렇게 피기시작했구나. 햇볕이 맑고 투명한 속에서 막 피기 시작한 그 벚나무는 화춥불을 허공에 지퍼놓은 형국이다. 크고 작은 지저께비들로 불붙인 시장골목이나 공사장터에서 흔하게 만나는 그런 화춥불이 거기 허공에서 타고 있다고나 할까. 이즈음 나는 그런 자세와 모습의 벚나무들을 유심히 살피며 지켜보고 있다.

'벚나무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니네. 나무에 따라서 꽃도, 피는 시기도 제 각각이네'

때로는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한다. 느닷없이 만개하기 시작하면, 벚나무들은 무슨 투명한 유리성곽처럼 꽃의 성체들을 이루고 만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흡사 먼 세상을 연출하듯 그 나무들은 일대를 꽃의 장관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마음 써서 보면 그 연출 솜씨나 행색이 또한 나무마다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어제 벚꽃들 뿐이겠는가. 사람들도 눈여겨 보면 각자 서로 다른 얼굴들만큼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 다른 생각들은 옷매무새에서부터 갖가지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표출된다. 앞 다투어 누구나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머리모양, 독자적인 걸음걸이들을 보이는 것이 그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것이다.

우리 풍악의 교정에는 어느 해처럼 막 피기 시작한 벚꽃들처럼 갓 입학한 새내기들로 봄비가 시작됐다. 교정 곳곳에서 그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새내기다운 참신함과 발랄함을 힘껏 뽐내낸다. 나는 지금의 저 발랄한 젊음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개성과 인품으로 장식해 줄 것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기 삶을 값있게 가꾸고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때로 진정한 사람살이에서는 온 세상이 모두 '동쪽이다' 할때 때 홀로 서쪽을 바라보고 지키는 일도 필요한 일인 것이다. 특히 가공된 이미지와 조작된 상징들만이 관을 치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필요한 일이다. 물이 반쯤 든 컵을 보고 '겨우 반 밖에 차지 않았어'라고 말하기보다는 '벌써 반이나 차겠군' 하는 마음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마음가짐에서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명진관 앞뜰의 고목에 가까운 벚나무들이 머지 않아 층층의 누각처럼 꽃의 성체를 열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다운 개성과 변별성을 은밀히 보이는 성숙한 아름다움을 내장할 것이다.

오늘길

손봉호 (시설관리팀 근로작업반장)

"동약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순식간에 나타나 이를 해결하는 만능해결사 '짱기'. 본교 학생들은 만화 속 사람들이 부러울 이유가 없다. 바로 '동약의 짱기' 손봉호 근로작업반장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27번째 본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에게는 동약 전체가 자신의 일터이다.

그를 비롯한 5명으로 구성된 근로팀은 행사 준비에서부터 기자재 교체와 하수구나 배수관 관리, 교내 식목 관리, 플래카드 관리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만큼 동약 곳곳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 폭설이 쏟아져도, 비가 많이 와 쌓이든 흙이 무너져도 다음날 아침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 없게 조치하는 것 또한 그의 임무다.

지금은 베테랑이지만 수위로 10여년 근무하다 근로팀으로 옮겨졌을 때 요령이 없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옆에서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버틴 것 같습니다"라며 끈끈한 동료애를 자랑하는 그는

그래서 동료들과 다른 근로작업반장이라는 직함을 부단스러워한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에서 담당자의 역할을 할 사람을 한명 정해 놓은 것뿐이라고 말하는 그의 연륜있는 모습에서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생활한 학생들에게 그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공동으로 쓰는 기자재를 비롯한 학교 물품을 소중히 다루는 기본적인 일을 지키지 않아 잦은 교체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물건들을 직접 버리는 경험을 해보면 학생들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본교 학생들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또래의 자식이 있어서 인지 학생들 모두가 내 자식 같죠" 그와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 중 몇몇은 그 앞에서 결혼약서를 쓰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몇쪽은 웃음을 짓



는다.

가끔씩 몸을 다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항상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는 손봉호 근로반장.

그는 따로 시간을 내 타 대학을 둘러보며 자신의 업무에 참고할 만한 사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이렇듯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그가 있기에 동약인들은 항상 든든하다.

'동약의 짱기'라는 애칭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붙여 질때 한번 더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문화관광부 지정 4월의 인물 - 백헌 이경석

민생회복 위해 주력한 조선시대 명상

백헌 이경석(1595~1671)은 인조부터 현종까지 조선왕조 3대에 걸쳐 활동한 명상이다. 그는 명·청 교체로 비롯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급격한 동요속에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이룩하여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었다. 말년에는 관인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인 계장을 하사받는 명예를 누렸다.



그는 경전 중에서는 '호씨춘추'와 '논어'를 정독하였으며 그밖에 사서를 탐독하였다. 그는 필법이 독특해 '명품'으로 소장하는 이가 많았다. 이경석은 당대를 대표하던 대문장가이기 때문에 인조와 효종의 행장을 지었다.

이경석은 정묘·병자호란 전후의 대청외교를 명분론에만 얽매이지 않고 명정교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리론을 주장하면서 국가보위와 경제회복에 진력하였다. 또한 국정운영의

최대 역점을 당색제거에 두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 자신도 조정에서 정론을 펼 때는 고사하고 남과 교류할 때조차도 한번도 당론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행정면에서도 이경석은 당색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인사행정에 주력함으로써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간 동력을 마련하였다. 그는 사회 경제 정책 면에서도 난후 민생회복을 위한 균부야 흠민을 국가 재건의 기본정책으로 삼아 추진했다. 군비의 확충과 양병보다도 민생회복의 위선을 강조하였다.

고수동정

△이명진, 이수(생명화학공학)=복합체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관련 대학 Hong Kong University,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university Teachi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Department of Automation & Computer-Aided Engineering 방문.

제44주년 4. 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

4. 19혁명 44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19기념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가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행사일시 : 2004. 4. 16.(금) 09:00~16:00

2. 행사장소 : 국립 4.19묘지(추모식) 및 북한산(등산대회)
(집결장소 및 시간 : 국립 4.19묘지 내(內) 광장, 09:00까지)

3. 행사내용 : 제44주년 4.19혁명 기념 추모식 및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4. 행사일정 및 준수사항

시간	행사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08:30	등산대회 단체합인	안내책자 수령 및 '산불조심리본' (행사 부분에서 제공) 착용
10:00	4.19혁명 44주년 기념 추모식 (헌화, 분향, 무념)	참가자 전원 4.19 기념탑 앞으로 이동 후 합동 분향
10:20	제35회 동국인 등산대회 개최식	
10:30	등산대회 출발(북한산)	
12:20	중식시작(대동문)	중식 시간(12:20~13:30) 엄수 및 과도한 음주 삼가(시상 기준)
13:30	전원 출발(하산)	쓰레기 투기 절대 금지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15:20	폐회식 장소 도착 (북한산성 매표소 앞 주차장)	폐회식 장소 도착 시간 엄수 (시상 기준)
15:30	시상식 및 폐회식	
16:00	해산 및 정리	귀가 시간에 맞춰 대중 교통 종차 예정

5.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4.19정신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 동국인 모두 이것만은 반드시 준수합니다.
가. 4.19기념 추모식 : 행사참가자 전원 참석 → 행사 전 4.19 기념탑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 분향

나. 동국인 등산대회 : 중식 시간 및 폐회식장소 도착 시간을 엄수하고, 중식 시 지나친 과음 절대 삼가
다. 등산대회 중식 후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모든 쓰레기는 하산 시 반드시 가지고 내려 올 것

6. 등산경로 : 국립4.19묘지 → 백련사매표소 → 대동문 → 보국문 → 중성문 → 대서문 → 북한산성매표소 → 북한산성매표소앞 주차장

7. 교통편

가. 시내버스
○ 06, 6-1, 16-1, 8, 8-1, 23, 28, 333 : 국립4.19묘지 입구에서 하차, 도보10분
○ 27, 127(우회합) : 국립4.19묘지 앞에서 하차, 도보 3분
나. 지하철 : 4호선 수유전철역(마을버스 및 학교(셔틀)버스 이용)
다. 셔틀버스 3대 운행 : 4호선 수유전철역 5번출구 ↔ 국립 4.19묘지 입구 (운행시간 : 08:00 ~ 10:00까지)

8. 참가대상 :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법인 등 모든 동국가족

9. 팀구성 :

가. 4인 1조팀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나. 학과 단체팀 :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다. 동아리 단체팀 : 20명 이상으로 구성, 지도교수 참가 시 가장절라. 행정부서 단체팀 : 행정부서 단위로 구성(기획인사처, 대외협력처, 교무처, 연구처, 총무처, 정보관리실, 중앙도서관 등)
※ 상기의 교직원 단체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부서는 4인1조로 팀을 구성 (홍보실, 단과대학 교학과, 각 대학원 교학부(과), 각 부속기관 등)

10. 시 상
가. 4인1조팀 : 총12팀 시상, 최우수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 자연보호상 5팀
나. 학과 단체팀 : 금상 1팀(₩1,000,000), 은상 2팀(₩500,000), 동상 3팀(₩300,000)

다. 동아리 단체팀 : 2팀 각 ₩300,000
라. 교직원 단체팀 : 금상 1팀(₩500,000), 은상 2팀(₩300,000)

11. 접수기간 : 2004. 3. 31.(수) ~ 4. 13.(화) 09:00 ~ 17:00

12. 접수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교학과
나. 4인 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3층)

13. 유의사항

가. 단체팀의 경우 접수기간 내 접수한 팀에 한하여 시상
나. 학과 단체팀 및 동아리 단체팀은 반드시 참가자 명단 제출 (양식은 각 단과대학 교학과 또는 학생복지실에서 배부)
다. 학과 및 동아리 단체팀은 행사당일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 세울 깃발 2개 준비
라. 우천시에도 대회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마. 도시락은 각자 준비(쓰레기 봉투도 필히 준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전화:2260-3048)로 문의

※ 행사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학 생 처

동약론

타버린 안전



"불난 후 동국관 5층 건물 방문이 다 꺼졌네" "문화관 미술학과 실습실에서도 불이 났었다."

본교에서는 지난 일주일여 동안 2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동국관 5층에 위치한 행정학과 전용 열람실과 문화관 1층 미술학과 실습실에서 불이 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동국관 일반 열람실 화재는 피해액이 1억원 정도로 집계된 큰 화재였다.

아직 경찰 수사 중인 동국관 화재는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문화관 화재 역시 누군가가 담배꽂이를 함부로 버려 시작된 것으로 두 사건 모두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강의실에 소화기가 있었나?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현재 본교 전 강의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학교측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에 한번씩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다수 학생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소방 교육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강의실을 제외한 행정실과 학과 사무실에도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는 만큼 소화기를 곳곳에 비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소방법에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설비를 학내에도 설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경계를 게을리 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관성화된 안전불감증이 그 무엇보다 위험한 불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시편을 기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국보법 자유롭게 탈피하자. 논단. 채은아. 민중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지난해 9월 송두을 교수가 귀국한지 꼭 6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송두을 교수가 귀국하면서부터 국정권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해묵은 이데올로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입장차 좁혀 탄핵의 그늘 걷어내자

'탄핵정국'. 현재 사회 모습은 이 한 단어로 대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탄핵이라는 폭풍은 우리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그보다 더 좁게 본다면 사회의 지식인층이라 불리는 학생으로서 반드시 깊게 고찰해 볼 문제이다.

대라는 입장 차. 우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 존재한다. 얼마 전 3월 31일에 열린 학생총회에서 노태우가 부르는 '너흰 아니야'라는 민가를 접했다. '너흰 아니야. 너흰 심판할 자격없어.' 그렇다. 분명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못을 범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몫이지 국회의원의 몫이 아니다.

그들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4월과 함께 봄이 찾아왔듯이. '국회는 죽었다'며 장례식을 진행하는 등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반대파. '국회의 승리'라며 탄핵을 반기는 보수적 지지파.

요즘은 맑은 하늘보다 누르고 뿌연 하늘을 많이 본다. 매년 이맘 때쯤이면 발생하는 황사 때문이다. 황사는 중국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인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고 눈도 자주 따가워한다.

피해를 보는 흡연자 주위 사람들의 건강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학내에서도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금연'이라고 써붙은 간판 아래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소나기. 촛불시위 위법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활동이 라기보다는 집단 운동이라 하고... △문화활동을 가장한 위법이 지요!!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99학번 산업시스템공학부 최은석 학우가 사랑에 빠진 날! 3월 2일 축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4월 1일 행정학과 야유회 즐겁게 놀시다 -행정학과 학생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학교육과 연합모꼬지 준비한 친구들 너무 수고했어요 수고가 짱! -편입생 이쁜이 4인방

그리고... △국문과 문이분과장님 사랑해요! △수요일 아침 회계원리 듣는 손0희 좋아요

금주의 식단

Table with 3 columns: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Rows list weekly menus for different days (월, 화, 수, 목, 금) and locations.

금주의 추천메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우거지국은 텃밭하면서도 시원해 속을 푸는 데도 한 몫을 한다. 우리 입맛에 딱 맞아서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기삼, 편집인 김주관, 부편집인 김국장, 편집장 김집장.

수학교육과 4학년 교육실습 잘 다녀오세요. △김공?정몽 연합 엠티잘 갔다옵니다. △03 역동 5반 사랑해 모두들 평생 인연 지속되

그리고... △수요일 아침 회계원리 듣는 손0희 좋아요 △동국 법대 야구부 LAWBREAKERS 신입부원 모집

지상논쟁을

사범대 가산점 폐지 논란

제한한다

가산점 제도의 입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기본권 침해시비까지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가산점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다른 방법 강구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 전원은 지난 3월 2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관내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졸업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가산점을 준 것은 위헌임을 확인 하였다.

문제의 가산점 조항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가산점 조항이 합헌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여기에 덧붙여 "적어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가능 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관점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사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일을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로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합치한다.

그러나 문제의 사안을 입법부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헌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 즉 우수교원의 확보, 목적형 교원양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의 육성, 교육의 지역 균형발전 등은 가산점제도의 배경이 되는 논거로서 사법부로서도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가산점 조항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그 조항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조항이 합헌임을 입증해야 할 교육감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헌재는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만 하면" 가산점 제도는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도 교원단체들도 이 방향으로 법제정을 문제해결의 해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과 같이 일정점수를 더 많이 배점하는 방식은 국회가 법률로써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건 주에 거주하는 백인인 원고 그루터는 미시건 법대에 지원하여 낙방한다.

미시건 대학이 인종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사용하여 소수 인종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 탓으로 자신은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낙방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미시건 법대의 행동은 차별을 금지한 미국수정헌법 14조와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녀 주장의 요지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주심 오키너판사)는 학생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을 인정하여 미시건 법대의 손을 들어준다. 학생집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인종을 선발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미시건 법대가 인종을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인종 할당제 혹은 가산제 등의 사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전에 특정한 혹은 집단 배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즉 인종은 다양한 전형 요소 중의 하나이고 각 지원자는 경쟁하고 있는 여타의 지원자와 일대일로 모든 전형 요소를 놓고 비교되었다는 미시건 법대의 주장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교사가 될 생각으로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교직에 대한 헌신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최소한의 교직과목만을 이수하게 하는 일반대학생의 교원자격 취득과정의 차를 인정할 때, 사범대학 졸업여부를 임용고사의 한 전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리고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교육적 이점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전형요소로서 거주지역을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시건 법대원의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이들 전형요소를 예컨대 "사범대학 졸업여부"와 "지역 내 거주"를 고려하되 주도적인 전

형요소로 혹은 가산점과 같은 절대적인 점수 형태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는 기본권 침해시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입법화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권의 침해시비까지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본권의 침해시비까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안은 예컨대 가산점의 기본취지는 살리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리고 품성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교사를 선발할 목적으로 교원자격증에 더하여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과 교육감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때 사범대학 졸업여부는 여러 전형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근거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지원자는 모든 전형요소로 비추어 일대일의 경쟁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박 부 권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위 글에 대한 논박이나 '사범대 가산점 문제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철도청, 이용객 위한 정책 마련해야

민주적 의견 수렴필요

지난 1일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철도의 개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청에서는 고속철도가 일반 열차보다 속도와 시설 면에서 우수하다는 이유로 기존 요금의 2배 이상의 요금을 부과시켰으며 KTX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열차의 운영 비율도 대폭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일반 열차의 이용객이 급감될 것을 예상해 이러한 시책을 내놓았다고 그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의 열차시

각표를 공표할 때까지 한번도 철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같은 의견 수렴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고속철도의 여러 문제점은 그만큼의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철도청의 무리한 일반열차 운행 수 감축과 요금 인상등으로 앞으로 시민들의 철도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대중교통 수단 장려의 목소리가 단순한 호소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철도청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이용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민 (사과대 신병2)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세심한 분석기사 아쉬워

지난 호 동대신문을 펼쳐 보면, 특히 중요한 1면의 경우에 기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공개된 내용에 대한 요약 또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가장 먼저 읽게 되고 중요한 학내 정보가 실리는 1면이지만 세심한 분석 기사는 없었다. 예를 들면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안 수립'의 경우 학내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주제이지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기사가 없어 대학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단지 구성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만으로 대학 발전 계획을 다루기에는 부족했다고 본다.

동대신문을 보는 독자층도 비교적 다양한 편

인데 공통적으로 부담 없이 읽을 '대학' 관련 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8면의 캠퍼스 생활면에 엠티를 소재로 한 읽을거리는 지난 대학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자 요즘 대학생의 엠티 문화와 변화를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아마도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도 한번쯤 더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다고 생각된다. 동대신문이 동문에게도 발송된다는 점에서 폭넓은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해 계속 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학에서 바람직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현실화하고 지원하는 행정 부서에 새로 부임한 부서장 인터뷰는 앞으로 행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앞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학내외의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중심의 보다 세밀한 준비와 인터뷰를 해주었으면 한다.

건학100주년 기념사업회 김진환 과장

동약게시판

기술고시/변리사반 오리엔테이션
4월 12일 5시 30분
원흥관 E103
프로그램: 기술고시/변리사반 소개
2004년도 기술고시 현황 및 향후 전망
우리사회 변리사의 역할과 전망

2004년 1학기 이동병무상담실 운영
4월 13일~14일
신관도서관 입구
상담원: 병무청 공보실

사과대 사물함 신청
4월 8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선착순)
신청대상: 학부 및 전공자
(단, 신문방송 3, 4학년 제외)
신청장소: 사회과학대학 교학과

북한학 특강
4월 8일 오전 10시 30분~12시
동국관 M동 407호

야생의 영토, 몸과 살-메를로 폰티 철학의 이해
4월 14일~6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학술관 213호

접수: 3월 29일~4월 9일
접수장소: 대학원 총학생회실

수강료: 1만원

2004학년도 1학기 인도철학과 논문 초록 발표회
4월 6일 오후 4시
문화관 302호

2004학년도 후기 선학과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 발표회
4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4시
문화관 310호

제23차 학술발표회 및 임시총회
4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제2회 서울 장애인권 영화제
4월 5일~4월 6일까지
오후 12시 30분~9시
영상미디어센터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5월 1일~2일
중앙승가대학교

2004년 취업·직업훈련 페스티벌
4월 8일~4월 9일
코엑스 컨벤션 홀

정치외교학과 엠티
4월 9일~10일
청평

물리학과 4월 행사
4월 10일 봄소풍
4월 19일 양자역학 졸업시험

신문방송학과 4.19 등반대회 신청
4월 16일 오전 9시
국립 4.19 광장에서
신청비: 도시락비 2천원

법대 사물함 철거
4월 6일 오후까지 자진 철거바람

경영통계(주) 강의실 변경
4월 8일(목)
L202 → M305
사유: 대학원 논문 초록 발표회

법대 노동법 강의 휴강
4월 6일 오전 9시~12시 수업

클래식기타 동아리 현여울 정기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신입생 레슨 - 월, 화, 목 총 2명1
오후 6시
학관 5층 동아리방

젊음을 마음껏 누리라

'이제 와 잠 푹다보다 내 청춘 / 비명도 없이 흘러갔다' 라는 시구를 보는 순간 울컥하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다. 시인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서 젊음의 시간이 점차 떠나고 있음을 확인한 듯하다. 그래서 문인수의 시 '동백'은 저리게 다가온다. 봄의 초입에서 이러한 애가(哀歌)를 서두로 삼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인다. 하지만 젊음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러움이 이 끝끝내를 감수하게 한다. 그래서 가끔은 삶이 한 번만 더 부여되었으면 하는 부질 없는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강덕화
본교 문청과 강사

오늘은 유독 강의실의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문학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이 부럽게만 보인다. 조금은 서툴지만 권위적 해석에 대해 맞서고 자신만의 논거를 마련하느라 호흡을 고르는 모습도 진지하 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대학이라는 공간에 함께 속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 행복감으로 이어진다. 이제는 강의실을 넘어서 캠퍼스의 구석구석에서 진지한 토론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치는 그 친구의 눈을 보기 바란다. 거기에 담긴 도전적 자세나 불의를 향해 터트리는 울분의 숨결을 만나기 바란다. 마땅히 보편과 합리로의 지향이 담겨 있으리라 본다.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적 문제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의 캠퍼스를 짓누르는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회피할 수도 없다. 어쩌면 그 짐들은 평생 지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 위압당해 아주 짧게 허락된 시간의 누림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짐을 지는 일과 대학 캠퍼스의 자유를 숨쉬는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아주 오래 전 대학에는 질은 우물쭈물 사린 적이 있었다. 그 시대는 학문에 대한 열정마저 존중하지 못했다. 물론 지식인에게 부여된 책임은 외면하지 않은 이들의 삶까지 무가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의 캠퍼스가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 지를 찾는 데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는 자신을 지켜보는 일은 사실 고통스럽다. 머리카락의 수가 적어지거나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뿌연 술잔을 앞에 두고 열정의 소멸을 바라보며 어찌 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20대에 대학을 다니는 일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본다. 내게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면 '햇빛'의 배역도 맡아보고 단편영화도 만들고 싶다.

그 젊음의 시간 한 가운데 있는 후배들에게 그 대들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미숙함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정으로 권한다. 또한 그대들의 사랑 앞에서 당당해야 하며 자신에게 내재한 열정을 뽐내는데 일에 망설이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그것은 자유의 누림이요, 상상의 실현이다. 또 무수한 도발이 가능한 나이이며, 그리고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도 확연히 느껴야 할 것이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가로열쇠

- 총학생회가 지난달 31일부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총장실 등에서 투쟁하고 있는 상태.
- 본교 학생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술의 종류 (본지 생활면 참조)
-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 반휴학
- 깊은 산 속에서 자라며 약용식물로 재배, 종류로는 수삼, 홍삼 등.
- 오는 15일에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명.
- 한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 국가○○법.
- 전체 8개 노선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수단.
- 법국민적으로 나무를 심는 날. 오늘(8일).
- 연극에서 한 인물의 역할을 맡아 무대에서 표정·몸짓 등의 동작과 대사로 극적 행위를 해 보이는 사람.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 인상을 관찰해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그 언어적 결론으로 길흉화복을 점치는 학문.
- 매우 큰 소나무.
- 한 가계의 사상.
-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제. 환웅의 아들이며 단군의 할아버지
- 재단(법인) 회계의 돈이 학교예산으로 들어오는 것
- 지난 달 25일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평화적으로 이뤄진 탄핵 반대 운동의 한 형태. 새만큼 간직 사업 때도 행해졌음.
- 불가에서 참선할 때 머리를 맑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먹던 음식.
- 이름뿐이고 실상이 없음. 유명○○.
- 비가 올 때 쓰는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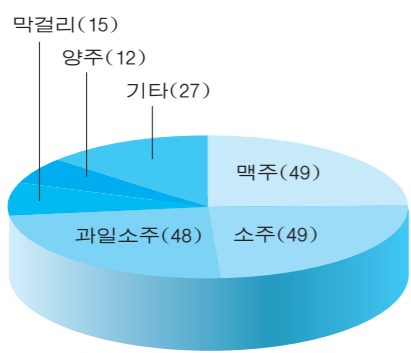
1383호 정답

보	결	선	거	국
험	거	집	회	
연	구	처	시	
좌	석	형	사	법
회		과	고	
형	의	서	한	추
쟁		국	립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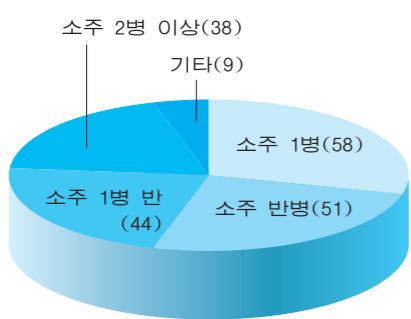
*이번호는 당첨되지 않는 관계로 다음호에 4명을 추첨합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차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지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4월 12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술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온다 ~

◆가장 좋아하는 술의 종류(명)



◆자신의 주량(명)



대학생들에게 술은 어떻게 다가올까. 대학과 입학과 더불어 새롭게 느끼는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닌 고등학교시절 금기처럼 여겨지고 꺼려하던 금주로부터의 자유다.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신입생들은 재밌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잔 마시고 나면 모든 이와 친구가 되고 부끄러움, 세상의 걱정 그리고 자신도 잊어버리는 세계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그 동안 즐거웠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들의 술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본교생 단골집 1위 '할머니집'

본사가 본교의 약 1.5%에 해당하는 200명의 학생(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11%에 해당하는 학생이 술의 가장 큰 매력으로 '사람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주로 친구와 마신다는 의견이 69.45%에 달했다.

또한 '가장 자주 접하는 술의 종류는 무엇?' 이

라는 질문에 소주, 맥주 그리고 과일소주가 각각 24%를 나타냈다. 이 술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천천히 마시면서 술에 취한 기분을 즐길 수 있어서' '맛있어서' 라는 의견으로 보아 학생들이 술을 즐겨 마시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학교 주변에서 가장 자주 가는 술집으로는 할머니집, 다저스, 대성실내포장마차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유로는 '과·동아리에서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31%, '술값이 싸서' 20%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생들이 자주 가는 술집 1위로 꼽힌 할머니집의 매력을 알아보면 우선 다른 술집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일명 '삼촌(?)'이라 불리는 주인아저씨의 편안함을 들 수 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다저스는 '안주가 맛있다', '분위기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3위를 차지한 대성실내포장마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안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자주 접하는 술의 종류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51.72%가 '소주'라고 응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자주 가는 술집 순위로 소주를 주로 판매하는 집이 많이 올랐다.

건강한 술 문화 이뤄야

한편 소주로 알아본 본교생의 주량은 남학생은 소주 1~2병이 82.85%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소주 1~2잔으로 15%를 보였다. 이에 반해 지난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음주실태 자료에 의하면 평소 주량에 대해서 남자는 1~2병이 56% 여자는 1~2잔이 55.9%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때 본교생이 한국인 평균이상으로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술을 잘 마시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잘 마신다는 과신은 자칫하면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탈선과 사고의 현장에는 술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술의 나쁜면보다 술의 좋은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술 문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별난이름 별난술

강원도 옥수수술

강원도의 토질은 옛부터 옥수수 재배에 적합하여 알도 굵고 많은 양의 옥수수가 수확된다. 이에 자연히 술도 옥수수로 빚어져 농주, 제주, 내방객 접대용으로 쓰였다. 옥수수 누룩을 삼베 자루에 넣어 독 안에 넣고 담요 등으로 싸뎀 뒤 약 7일 정도가 경과하면 옥수수술이 완성된다. 이 술은 그 맛도 좋지만 특색 있는 맛이 있어 쉽게 취한다.

서울, 경기 문배주

본래 평양에서 주조되던 술이었으나 이기춘씨에 의해 서울에서 제조되고 있다. 좁쌀과 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며 좋은 향과 부드러운 맛이 좋아 최근 국민 및 외교 사절단 리셉션에 국주로 선보이고 있다. 문배주는 첫잔부터 둘째의 향기가 진하게 나 거부감이 없지만 목젓을 타고 내려갈 때쯤이면 알콜도수 40도의 독한 술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경기도 김포별주

김포별주는 곡물에 누룩을 섞어서 담근 우리고유의 전통 술로 고양 등 경기 서북부 일대와 서울 장안역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명주이다. 알콜농도 11도의 이 술은 약간 달착지근하면서도 은근히 취기가 오으며 적당히 마시면 피로회복 등 건강에도 좋다.

정리=문화부
culture@dongguk.edu

주량 측정 테스트

체중(kg)×0.1(g)×24(시간)
이 것은 사람이 하루에 술을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다. 예를 들어 체중 80kg인 사람이 하루에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80×0.1(g)×24(시간)=약 192g 이다.

하지만 하루 중 절반은 간도 알코올의 해독에서 벗어나 있어야 그 기능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96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 96g에 해당하는 알코올의 양
알코올농도가 4%인 맥주와 24%인 소주로 예로 들어보면 96÷0.04=2400cc, 2500cc잔으로 10잔이 된다. 96÷0.24=400cc, 소주 한 병이 약 350cc이므로 1.1병이 된다.

물론 알코올을 처리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고, 식생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알코올 처리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없다.

간혹 사람들에게 주량을 물어보면 "나의 주량은 소주 1병(7잔)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가능하지만, "나의 주량은 3병이다"라는 말은 자신의 간 능력을 무시한 발언일 뿐이다.

술맛 내는 원료의 비밀을 말한다

주로 마시는 술의 원료가 모두 '곡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소주의 원료는 찹쌀, 맷쌀, 밀, 보리, 감자, 고구마, 타피오카 등 전분이 많은 곡류다. 종류방법에 따라 종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뉘는데 증류식은 안동소주와 같은 알콜도수 30~35도 정도의 고급소주를 말한다. 주로 찹쌀, 맷쌀 등으로 만들며, 본래 술에 들어있던 향기가 알코올과 함께 증류돼 소주에 들어가므로 매우 향기롭고 숙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25도 이하의 희석식은 원료를 발효시켜 정제한 주정에 물, 조미료, 향료 등을 섞어서 소주 맛을 낸 것이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쌀이 모자라 쌀로 술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알코올에 물을 타는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 된 것이다. 다소 값싼 원료와 알코올에 물을 희석하다보니 술 고유의 향보다는 알코올의 '쓴 맛'이 강하다.

그러나 요즘은 각 소주 회사에서 그 맛의 미묘한 차이를 위해 원료인 물을 다르게 사용한 다던가 녹차를 끓여낸 물을 첨가하는 등 소비자의 입맛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독하지 않고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꼽는 술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맥주다. 흔히 맥주 하면 맥보리를 원료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외의 조주 작업이 까다롭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맥주를 직접 담아 마시기도 하는데, 맥주의 원료는 크게 호프, 보리, 누룩, 물로 나눌 수 있다. 맥주의 본 고장인 독일에서는 이 외의 첨가물을 넣을 경우 맥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 기준이 엄격하다. 맥주는 맥주보리를 당화시켜 물에 녹인 후 호프를

첨가해 쓴맛과 호프향이 잘 어우러지게 한다. 이후 이스트를 넣고 발효시켜 자연상태에서 알콜과 거품, 탄산가스를 만들어 낸다.

막걸리는 쌀과 누룩으로 술을 빚는다. 여기에서 누룩은 밀이나 쌀겨, 밀기울, 조 등을 찌지 않고 자연 상태의 미생물을 증식시킨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분이 많고 알콜 도수가 5~6도 정도로 낮으며 특유의 감칠맛을 잘 낸다. 또한 피부미용, 체내 축적 피로물질 제거, 성인병에도 좋다.

막걸리는 숙성기간을 100일 정도로 해야 1년을 두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고품질이 되는데 근래에는 숙성기간이 짧은 미발효상태의 술이 많아 숙취가 심하다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정보마당

* 자세한 정보는 본교 취업지원팀(3053)에 문의하세요.

취업

(주)비전시스템
모집부문: 일반 내방객 안내 및 VIP내방객 리셉션
채용부문: 정규직, 여 00명
응시자격: 1978년 이후 출생자, 신장 170이상
제출기한: 4월 17일
문의: 02-592-3154

(주)인트넷
모집부문: AE사원
채용부문: 정규직, 1명
자격: 영어 회화 및 문서 작성, 번역 가능자 등
제출기한: 4월 17일
문의: 02)516-4007

(주)선인장 엔터테인먼트
모집부문: 마케팅 프로듀서
채용부문: 정규직, 남녀 00명
응시자격: 방송관련 전공자 우대
제출기한: 4월 12일
문의: 02)781-8151~3

수호천사 총력
모집인원: 여 0명(계약직)
업무내용: 수신업무, 입력업무, 전산민원처리

모집기간: 4월 9일까지
롯데닷컴
모집분야: 사무보조
모집 기간: 4월 7일까지
문의: 02)3668-8629

과학기술교육센터
모집분야: 유치부 과학공작 지도교사
모집기간: 4월 6일까지
문의: 02)333-4862~3

아르바이트

향후개발
모집분야: 공사 현장 보조
모집인원: 00명
시간: 오전 8시~오후 6시
시급: 상담 후 조정
모집기간: 4월 10일

AC Nielsen Korea
조건: 만 20~25세 여자 휴학생
모집인원: 2명
시간: 조정가능
시급: 3,000원(협의 가능)
모집기간: 충원시까지

중앙일보
모집분야: 영어캠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 00명

시급: 상담 후 조정
모집기간: 4월 15일까지
문의: 02)2000-6017

주식이엔지 세기 시절
모집인원: 남 00명
시간: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 ~ 오후 4시
월급: 900,000원
문의: 02)565-2427~8

(주)리서치뱅크
업무: 이동전화 관련 전화 조사
자격: 만 20~59세
업무기간: 4월 1일 ~ 4월 7일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9시(조정 가능)
시급: 조정가능
접수기한: 4월 5일까지

가타

육군 MC 승무원병 모집
모집인원: 남자 00명
지원자격: 19~28세 고졸 이상
신체등급 1~2급 현역대상자
원동기 면허 소지자
원서접수: 4월 1일 ~ 20일
접수처: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문의: 1588-9090



한의학으로 풀어본 건강이야기

연노란 산수유 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봄기운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한의학에서 봄은 목화토금수의 오행중 목(木)에 해당하는데 이 목(木)의 기운은 씨앗의 생명력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몸을 뒤틀며 뻗어 오르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에 적응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의학의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봄철의 양생법을 말하면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므로 그 기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좋으며 그 뜻을 살려 절대로 모든 것을 살리되 죽이지 말며 주되 빼앗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木)의 장부

인 간장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봄에는 특히 입맛도 없어지고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조금만 활동량이 늘어나도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를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생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봄의 발생기운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쭉쭉 펴주고 이완시켜주면서 입맛이 없다면 신선하고 향긋한 봄나물을 새콤하게 무쳐 드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철 양생법

최인화
본교 한의과대학 교수

손으로 말해요

“우리 함께 남산으로 꽃구경 가요”



우리 함께 남쪽 산 꽃 보다 가다 부탁하다 (구경하다)

제공 = 손짓사랑회